



수시전략과제 2025-08

# 충남 예술인 쿼터제 도입에 관한 연구

박철희·이지원·신선하·전수광



## ◀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제안

---

### 주요 연구내용

---

#### 1. 연구의 배경 및 실태 분석

##### 1.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충청남도는 지역 문화 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공공 예술 사업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지역 예술인들이 소외되는 현상이 지속됨
- 특히 대규모 축제나 공연이 대중적 인지도나 수도권 네트워크 위주로 기획되면서 실력 있는 지역 예술인, 특히 청년 및 신진 예술인들이 무대에 설 기회를 잃고 역외로 유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역 예술인의 필수 참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쿼터제(일정 비율 할당제)’ 도입이 제기되어 연구를 수행함

##### 1.2. 충남 예술인 활동 실태

- 충남 예술인 생태계는 ‘협소한 인적 기반’, ‘경제적 취약성’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음
- ✓ 낮은 예술인 밀도: 인구 1만 명당 예술인 활동 증명 완료자 수가 전국 평균(12명)의 절반 이하인 4.9명에 불과
- ✓ 심각한 소득 격차: 월평균 예술활동 수입은 약 45.3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낮으며, 지역 축제 참여 시 외부 예술인과의 출연료 차이가 최대 9배까지 발생하는 사례가 확인됨
- ✓ 참여의 부수화: 지역 예술인이 행사에 참여하더라도 주도적인 프로그램보다는 식전 행사나 보조적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역량 강화와 경력 형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 1.3. 사회적 합의 및 인식

- 인식 조사 결과, 도민의 81.0%, 예술인의 83.6%가 쿼터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었음.
- 이는 지역 예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 쿼터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음을 시사함

## 2. 도입 전 주요 쟁점 및 고려사항

- 쿼터제 도입은 긍정적인 기대 효과만큼이나 현장의 우려와 법적 논란이 공존하는 사안임.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쟁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함
- ① 예술적 수월성과 기획의 자율성 침해 예술적 완성도보다 지역 안배를 우선할 경우, 행사의 질적 수준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함(조사 결과 27.0%가 행사 품질 저하 우려). 기획자의 창의적 선발권을 행정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반발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가 핵심임
- ② 법적 타당성과 형평성 논란 특정 지역 거주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방식은 「지방계약법」상의 공정 경쟁 원칙이나 「헌법」상의 평등권 위배 소지가 제기될 수 있음. 단순 거주지 할당을 넘어 지역 기여도나 연고성을 정교하게 정의하여 ‘역차별’ 논란을 해소해야 함
- ③ 수혜의 편중 및 독점 우려 쿼터제가 도입되더라도 지역 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특정 중견 예술인이나 단체에 지원이 쏠릴 가능성이 있음. 청년·신진 예술인을 위한 별도의 세부 쿼터 설계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본래 취지인 ‘생태계 다양성 확보’가 퇴색될 수 있음

### **정책 제안** : 신중한 준비를 통한 단계적 접근 필요

## 3. 정책 제안

- 쿼터제 도입 시 앞서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해소하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접근을 제안함

### 3.1. 객관적인 ‘충남 예술인’ 인증 및 기준 설정

- 쟁점이 되는 자격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준을 적용해야 함
- 자격 검증: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완료자를 기본으로 하되, 무형문화재 이수자 등 공인 자격 보유자를 포함하여 수혜 대상을 명확히 함
- 거주 및 연고성: 현재 충남 거주자뿐만 아니라 과거 거주 이력이나 도내 활동 실적이 있는 예술인을 포함하는 ‘유연한 지역 연고제’를 도입하여 법적 논란을 완화함

### 3.2.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단계적 운영 모델 개발

- 현장의 거부감을 줄이고 기획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유연한 도입 방식을 택해야 함

- 유도형에서 의무형으로: 초기에는 강제적 할당보다는 가산점 부여나 권장 비율을 제시하는 '유도형(Incentive-based)'으로 시작하고, 성과 평가 후 점진적으로 의무 비율을 설정하는 '단계적 의무화' 전략이 필요함
- 예산과 인원의 복합 쿼터: 단순 출연 인원수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체 출연료 예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 예술인에게 배분하도록 설계하여 '저가 수주'나 '부수적 참여'를 방지해야 함

### 3.3. 예외 조항 마련 및 기획 자율성 보장

- 모든 행사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사업의 성격에 따른 예외를 인정해야 함
- 해외 교류, 전문 실험 예술, 대형 기획 공연 등 장르적 희소성이나 행사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쿼터 적용을 완화하거나 제외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명시하여 기획의 전문성을 보호함

### 3.4. 사후 관리 및 역량 강화 체계 구축

- 쿼터제가 지역 예술인의 자생력을 해치는 온실이 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병행해야 함
- 모니터링 체계: 시·군별 지역 예술인 참여율과 환류율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기초자치단체 평가나 재정 지원에 반영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가동해야 함
- 질적 성장 지원: 쿼터 참여 예술인을 대상으로 전문 기획자와의 협업, 교육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여 이들이 외부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성장의 사다리' 역할을 수행해야 함

## 목 차

<b>제1장 서론</b> .....	<b>1</b>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3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	3
2. 연구의 목적 .....	4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5
1. 연구 범위 .....	5
2. 연구 방법 .....	6
제3절 연구추진 일정 .....	8
<b>제2장 쿼터제와 관련 법·제도</b> .....	
제1절 쿼터제 개념과 도입사례 .....	11
1. 쿼터제 개념 및 배경 .....	11
2. 쿼터제 도입 사례 .....	14
제2절 관련 법·제도 .....	16
1. 헌법 .....	16
2. 지역문화, 예술, 예술인 관련법 .....	16
3. 지방자치 및 계약법 .....	18
4. 충청남도 조례 .....	19
5. 검토 종합 및 소결 .....	20
<b>제3장 충남 예술인 현황 및 축제·행사참여 현황 및 문제점</b> .....	
제1절 충남 예술인 현황과 행사·축제 참여 실태 .....	27
1. 충남 예술인 현황 .....	27
2. 행사 및 참여현황 .....	30
제2절 현황종합 및 문제점 .....	35
1. 충남 예술인 창작활동, 소득, 창작인프라 현황 .....	35
2. 충남 예술인 행사 및 축제 참여현황 .....	36
3. 종합 분석 및 소결 .....	37

## 제4장 충청남도 예술인 쿼터제 도입에 대한 인식조사 .....

제1절 조사개요 .....	41
1. 조사대상, 내용 및 방법 .....	41
제2절 조사분석 및 결과 .....	45
1. 충남도민 의견 .....	45
2. 충남 예술인 의견 .....	50
제3절 분석종합 .....	55
1. 충남도민과 충남 예술인 간 의견분석 .....	55
2. 비교 종합 .....	65

## 제5장 충남 예술인 쿼터제 도입 검토 및 기본방안 .....

제1절 충남 예술인 쿼터제 도입의 쟁점 사항과 당위성 검토 .....	69
1. 충남 예술인 쿼터제 도입의 쟁점 사항 .....	69
2. 충남 예술인 쿼터제 도입의 당위성 .....	72
제2절 도입방안 .....	77
1. 충남 예술인의 정의와 기준설정 .....	77
2. 충남 예술인 쿼터제의 정책 목표 .....	80
3. 충남 예술인 쿼터제의 세부 기준 설정 .....	80
제3절 추진방안 .....	82
1. 정책 틀 마련과 운영 표준화 .....	82
2. 실행 전략 및 지속 가능성 확보 .....	83

## 참고문헌 .....

85

## 부록 .....

87

## 표 목차

〈표 3-5〉 시·군 및 충남문화관광재단 축제·행사 조사 대상 .....	31
--	----

저자분께: 표번호 오류, 본문내 표번호 언급(파랑색 표시) 오류 검토 부탁드립니다.



# 1

## 서론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5
제3절 연구추진 일정.....	8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 충청남도는 지역 예술인의 활동 기반 강화와 문화자치 실현을 위해 지역 예술인 활동 기회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 예술인이 축제·행사 등 공공 무대에 참여할 기회는 부족하여 충남 예술인의 역외 유출과 창작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함

- 이는 도내 예술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자생력 확보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

- 도내 예술인이 도내 축제·행사에 참여 기회 확대 지속 요구

#### ① (2025. 3. 5.) 청년과 함께하는 소통·공감 간담회

〈 도지사 지시 사항〉

- ▶ 청년예술인들의 무대 참여를 장려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개정하여, 도 및 시군에서 개최하는 지역 예술인들이 필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② (2025. 3. 11.) 한국예총 충남연합회 간담회

〈 도지사 지시 사항〉

- ▶ 연구용역 등을 거쳐 타당성 확보 후 조례 제정(도내 축제·행사에 지역예술인 참여 제도 마련/ 쿼터제, 총액상한제 도입)

#### ③ (2025. 4. 29.) 청년예술인 정책소통 간담회

- 사업예산 일정 비율(예: 25%)을 지역 청년 예술인 섭외에 배정하여 청년예술인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 요청

- 충남도 내 축제·행사에서 지역 예술인의 일정 비율 이상 참여를 보장하는 ‘충남 예술인 쿼터제’를 도입하여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개선하는 방안 필요
  - ① 인지도 기반의 섭외 구조 : 축제나 공연행사는 대중적 인지도나 외부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출연진이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 예술인은 실력이나 활동경력과 무관하게 무대에 설 기회를 얻기 어려움
  - ② 진입 장벽 : 외부 기획사 또는 기존 섭외 라인과 연결되지 않은 지역 예술인은 행사 참여 자체가 어려우며, 이는 특히 청년 및 신진 예술인에게 더욱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
  - ③ 활동 무대의 협소성 : 지역 내에 공연 기회가 충분하지 않아, 충남에서 꾸준히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인식이 형성되고 있으며 예술인의 타 지역 유출로 이어지고 있음
- ⇒ 이러한 문제들은 단지 개별 예술인의 불이익에 그치지 않고, 충남 예술 생태계 전반의 지속 가능성, 형평성, 다양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

## 2. 연구의 목적

- 충남 예술인 쿼터제 도입에 필요한 법제도적 측면, 충남 예술인의 현황과 여건, 축제행사 참여실태와 도민, 예술인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검토하고 접근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음
- 세부적으로 첫째 충남 예술인 현황과 활동실태, 충청남도 내 행사 및 축제 지역예술인 참여현황(예산, 인원)과 문제점 검토, 법제도적 검토를 통해 도입 가능성을 검토
- 둘째 충남 예술인, 도민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의 사회적 수용성과 당위성을 검토
- 셋째 정책도입의 기본 방안을 검토하고 제시함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1. 연구 범위

#### 1) 공간적 범위

- 충청남도 내에서 개최되는 행사를 대상으로 함

#### 2) 시간적 범위

- 2025년을 기준으로 하되, 통계적으로 가장 최근 자료를 활용

#### 3) 내용적 범위

##### (1) 이론적 고찰 : 쿼터제의 개념과 운영사례 - 국내외, 장르별

- 쿼터제 도입에 따른 쟁점사항 검토

##### (2) 충남 예술인 쿼터제 도입여건 조사·분석

- ① 지역 예술인 쿼터제 법제도 검토 - 법령 및 조례, 지침
- ② 충남 예술인 현황 조사 - 인력, 소득, 창작활동, 인프라 등
- ③ 충청남도 내 행사 및 축제 지역예술인 참여현황 실태조사
  - 지역 예술인 실제 참여율(지급비율, 인원비율) 조사
- ④ 충남 예술인 쿼터제 도입의 의견 수렴
  - 도민, 예술인 수요조사를 통해 정책의 사회적 수용가능성 검토

### (3) 쿼터제 도입의 당위성 검토 및 종합

- 충남 예술인 현황과 실태(인력, 소득, 창작활동), 예술활동 참여 기회,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도민의견)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당위성을 검토

### (4) 쿼터제 도입의 정책 방향 제안

- 쿼터제 정책 목표, 쿼터제 기준(예산 및 인력, 예산 확보, 세대구분, 장르구분), 도입방식(의무, 권장, 유도 등), 도입비율(예산 및 인력) 등을 제안

## 2. 연구 방법

### 1) 문헌연구

- 쿼터제 관련 선행 연구 및 정책, 사례의 고찰 등 문헌연구를 추진하였음
  - 쿼터제 관련 선행 연구(예:스크린, 음악 등),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에 대해 조사

### 2) 현황 및 사례조사

- 충남도 내 행사 및 축제 지역예술인 참여현황 실태조사
  -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충남문화관광재단, 시군, 시군문화관광재단 사업추진 현황조사
  - 행사추진(진수, 예산, 시기), 지역예술인(지급예산, 참여인원) 참여 등에 대해 조사분석
- 국내외 쿼터제 운영사례조사
  - 국내외(국가, 지자체), 인터넷,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조사함

### 3) 설문조사

- 예술인, 도민 등을 대상으로 충남 예술인 쿼터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 인식도 등에 대해 조사를 추진함

- 쿼터제 도입의 필요성, 정책목표, 쿼터제 기준(예산 및 인력, 예산 확보, 세대구분, 장르구분), 도입방식(의무, 권장, 유도 등), 도입비율(예산 및 인력)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

#### 4) 워크숍 및 자문회의

- 전문가 및 실무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워크숍, 자문회의 등을 개최
  - 연구의 질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가, 예술인, 도 공무원 참여

### 제3절 연구추진 일정

• 연구추진 일정은 아래표와 같음

연구내용	추진일정	2025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서론 -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범위 및 방법		■					
2. 충남도 내 행사 및 축제 지역예술인 참여현황 실태 조사			■	■	■	■	
3. 관련 법·제도 검토, 사례조사			■	■			
4. 쿼터제 도입에 대한 인식조사				■	■	■	
5. 충남 예술인 쿼터제 도입 당위성 및 기본방안 - 도입 당위성, 도입 기본방안, 추진방안 등			■	■	■	■	
6. 결론 및 정책제언						■	■
워크숍(■) 및 자문회의(□)			■	□		□	
착수, 최종 연심회		착수					최종

2

## 쿼터제와 관련 법·제도

---

제1절 쿼터제 개념과 도입사례 .....	11
제2절 관련 법·제도 .....	16



## 제1절 쿼터제 개념과 도입사례

### 1. 쿼터제 개념 및 배경

#### 1) 쿼터제의 개념 정의

- 특정 집단이나 집단 구성원에게 일정 비율(Quota)을 할당하여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임
  - 이는 형식적 평등(formal equality)만으로는 실질적 평등(substantive equality)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출발함<sup>1)</sup>
- 주로 성별, 인종, 지역, 사회적 소수자 등 구조적으로 불리한 집단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 활용됨
- 일정한 비율(쿼터, quota)을 법적·제도적으로 할당하여, 특정 분야(영화, 음악, 방송 등)에서 지역출신 또는 지역 문화 콘텐츠가 최소한의 노출·상영·방영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문화예술 분야에서 쿼터제(Quota System)는 특정 국가나 산업이 자국의 문화·예술 생산을 보호하고, 외국 문화의 과도한 유입을 조절하기 위해 일정한 비율이나 기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임
  - 대표적인 예로 스크린쿼터제(Screen Quota<sup>2)</sup> System)가 있음

1) [https://en.wikipedia.org/wiki/Kalanke\\_v\\_Freie\\_Hansestadt\\_Bremen](https://en.wikipedia.org/wiki/Kalanke_v_Freie_Hansestadt_Bremen)

2) <https://encykorea.aks.ac.kr/>

구분	쿼터제 (Quota System)	할당제 (Allocation System)
개념	특정 집단(성별, 지역, 계층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이나 의석·정원을 보장하는 제도	자원(예: 예산, 인원, 물자)을 특정 기준에 따라 나누어 분배하는 제도
적용 대상	주로 인적 자원·대표성 보장: 정치(여성·청년 의석), 교육(지역 할당), 고용(장애인 고용 의무) 등	주로 물적 자원·재화 분배: 공공임대주택, 군입영 인원, 예산 배정, 자원(어업 쿼터) 등
목적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대표성 확대 및 참여 기회 보장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형평적 배분
강제성	비율 미달 시 선거 무효, 채용 불허 등 강한 제재 수단 동반 가능	기준에 따라 분배하되, 운영 주체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큼
예시	-여성 국회의원 의석 30% 의무화	-공공임대주택 지역별 할당

## 2) 쿼터제의 이론적 배경

### (1) 자유주의적 평등 이론(기회평등·liberal egalitarianism)<sup>3)</sup>

- 전통적 자유주의는 경쟁의 공정성을 중시하며, 능력과 성과에 기반한 배분을 강조함
- 그러나 구조적 불평등으로 인해 출발선이 다른 집단에게 단순 경쟁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2) 실질적 평등 이론(substantive equality)<sup>4)</sup>

- 존 롤즈(John Rawls)의 정의론에 따르면, 사회 제도는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함
- 쿼터제는 단순히 기회의 평등을 넘어 결과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로 해석됨

### (3) 다원주의적 대표성 이론

- 민주주의의 핵심은 다양한 집단이 제도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있음. 특정 집단이 지속적으로 배제되면 민주적 정당성(democratic legitimacy)이 약화됨<sup>5)</sup>.

3) [https://plato.stanford.edu/archives/sum2004/entries/equal-opportunity/?utm\\_source=](https://plato.stanford.edu/archives/sum2004/entries/equal-opportunity/?utm_source=)

4) 1. [https://eige.europa.eu/publications-resources/thesaurus/terms/1103?language\\_content\\_entity=en&utm\\_source=](https://eige.europa.eu/publications-resources/thesaurus/terms/1103?language_content_entity=en&utm_source=), 2. UN인권사무소

따라서 쿼터제는 제도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수단임

- 정치, 노동, 교육 등의 분야에서 도입되어 활동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음
  - 정치: 여러 국가에서 여성 정치인의 비율 확대를 위해 의회 의석 할당제를 시행
  - 노동: 장애인 고용 할당제,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 등이 대표적
  - 교육: 일부 국가의 대학 입시에서 소수자 집단을 위한 입학 쿼터제를 운영
- 이러한 배경하에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쿼터제의 도입의 목적은 시장 내 공정 경쟁 확보, 문화적 다양성 보호, 국가·지역 문화산업 육성, 문화주권 수호 등에 있음

### 3) 의의와 쟁점

구분	일반 분야	문화예술 분야
긍정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조적 불평등 해소</li> <li>•다양성, 대표성 강화</li> <li>•변화 모델 효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국 문화의 보호와 진흥</li> <li>•다양성 보장과 문화적 자립성 확보</li> <li>•글로벌 문화 경쟁 속에서 산업적 기반 마련</li> </ul>
부정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유경쟁, 능력주의 훼손 우려</li> <li>•역차별 논란</li> <li>•형식적 제도화의 한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장 자율성 침해 가능성</li> <li>•국제 무역 협정에서 문화적 예외 인정 여부 논란</li> <li>•단순한 보호에 그치면 질적 경쟁력 저하 우려</li> </ul>

- 쿼터제는 단순히 ‘공정한 경쟁’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정의와 제도적 정당성 확보라는 맥락에서 이해해야 함
- 다만, 제도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으며,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과도기적 장치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함
- 따라서 쿼터제는 단순한 비율 배분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화·의식 변화와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

5) [https://www.britannica.com/topic/polyarchy?utm\\_source=](https://www.britannica.com/topic/polyarchy?utm_source=)

## 2. 쿼터제 도입 사례

- 문화 분야에서의 ‘쿼터(quota)’ 제도는 가장 비슷한 사례로, 특히 음악 방송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행사 자체에 지역 예술인을 일정 비율로 참여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
- 다만, 일부 영역에서는 유사한 보호 장치들이 있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 문화분야 쿼터제 도입 사례

#### (1) 음악방송 분야

- 호주
  - 상업 라디오 방송사에 대해 호주 음악(Australian music)을 최소 25% 이상 방송해야 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음
- 캐나다
  - 방송사에 국내 음악 콘텐츠를 최소 35% 이상 방송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 이는 캐나다 음악 산업 보호 및 문화 정체성 유지를 위한 정책임
- 프랑스
  - 방송되는 곡 중 최소 40%는 프랑스어로 된 음악이어야 한다는 법이 있음
- 필리핀
  - 1시간당 최소 4곡의 ‘Original Pilipino Music’(OPM, 필리핀 현지 음악)을 틀어야 한다는 행정명령이 있음
- 이들 사례는 ‘방송 프로그램’ 콘텐츠 내에서 로컬 창작자를 일정 비율 이상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임

## (2) 행사 참여 쿼터 — 현재로서는 제한적 사례

- 문화 행사(축제, 공연 등)에 지역 예술인의 일정 비율 참여를 법적 의무로 규정한 국제 사례는 거의 없음
- EU 및 UNESCO 같은 국제기구는 문화 접근성, 지역 균형 문화 진흥 등 광범위한 정책을 장려하지만, 구체적인 비율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형태는 드물
- 공공 미술조성 ‘1% for the Arts’ 프로그램
  - 미국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공공 건설 프로젝트 예산의 0.5~1%를 공공미술에 할당하도록 하는 정책이 있음
- 예술인 복지 및 권리 보호 법제화
  - 예: 한국의 예술인 권리보장법 및 예술인 복지 정책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익 보호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공연이나 행사에서 지역 예술인 참여 비율을 강제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음

## (3) 시사점

분야	사례 국가/지역	적용 방식	비고
방송 쿼터	호주, 캐나다, 프랑스, 필리핀	방송 콘텐츠 내 지역 음악 일정 비율 법적 강제	지역 예술인 보호 목적
행사 참여 쿼터	거의 없음	국가·지방 차원의 법률보다는 내부 지침이나 권고 수준	실질 적용 사례는 희박
공공미술 예산 할당	미국 일부 지방정부	건설 예산의 0.5-1%를 공공 예술에 사용	예술 참여 비율 관련은 아님
예술인 복지·권리 법	한국 등	예술인의 권익 보호, 표준 계약, 복지 체계 강화 등	참여 비율보다 창작 환경과 권리 보호 중심

- 음악 방송 분야에서는 로컬 콘텐츠 쿼터(음악 방송 시 현지 곡 일정 비율 의무)가 확실한 사례로 존재함
- 그러나, 문화 행사 참가에 일정 비율로 지역 예술인의 참여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사례는 현재 거의 없음
- 행사 주체(지자체, 재단 등)들이 내부 지침이나 자발적인 정책으로 지역 예술인 참여 비율을 설정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는 법적 수단과는 다름

## 제2절 관련 법·제도

- 국내에서 ‘예술인 쿼터제’라는 명칭으로 규정된 제도는 존재하지 않지만, 지역문화진흥, 예술인의 권리 보호와 창작 환경 지원, 지방자치 및 계약과 관련된 법·제도들을 중심으로 검토함

### 1. 헌법

- 평등권(제11조),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예술의 자유(제22조) 등이 관련됨
  -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함(법 제11조)
  -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짐(법 제22조)

### 2. 지역문화, 예술, 예술인 관련법

#### 1) 지역문화진흥법

##### (1) 목적

-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하고 지역별로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국가 실현을 위해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2) 내용

-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 지역문화 다양성, 생활문화 활성화,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 보존을 기본 정책으로 제시

- 지역문화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지원·육성 정책과 사업을 펼 수 있는 근거를 부여
  -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법 제6조의2),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시행령 제4조의3),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시행령 제4조의6)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접근 가능
- ‘지역예술인 의무 참여비율’처럼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비율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충청남도 지자체 조례·지침과 설계를 통해 가능

## 2) 문화예술진흥법

### (1) 목적

- 문화예술의 진흥, 전통문화예술 계승, 새로운 문화창달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

### (2) 내용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법 제7조) 차원에서 지원 가능하며, 미술품의 경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법 제9조)로 지원 가능
- 장애인과 장애예술인의 경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법 제15조의2)으로 가능

## 3) 예술인 복지법

### (1) 목적

-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

### (2) 내용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에 관한 규정(법 제4조의①),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 차원에서

성별, 연령, 지역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장(법 제4조의②),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법 제4조의③) 측면에서 가능

#### 4) 예술인 권리보장법

- 2025년 8월 말에 국회를 통과한 새로운 법안이며, 예술인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었음
- 전통적 제도 사각지대에 있던 신진 예술인, 교육과정에 있는 예술인 등에도 보호 범위를 확장하고 있음

### 3. 지방자치 및 계약법

#### 1) 지방자치법

- 지자체의 사무 범위(법 제13조 5)로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이 가능
- 그러나 ‘지역예술인 참여 촉진’을 위해 제정은 가능하지만, 과도한 시장·직업선택 자유 침해나 차별적 제한으로 볼 소지가 없도록 설계가 필요

#### 2)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공모·위탁·용역 계약을 통해 행사 대행·프로그램 제작을 맡길 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경쟁의 제한적 요건(법제9조, 예: 지역제한·인적구성 비율 강제)을 설정할 수 있음
- 행사·프로그램의 공익 목적(지역 창작생태계 보전, 주민 문화권 보장, 지역 순환경제)과의 합리적 관련성, 비율 수준의 합리성, 대체 수단 검토(가점·목표관리)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음

#### 4. 충청남도 조례

- 충남 예술인 활동과 관련된 조례는 문화정책 12건(충남문화관광재단, 거리공연, 국악진흥,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진흥, 사진, 영상·영화산업, 예술인 복지 증진,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지역문화진흥, 청년 예술인 육성 등)에 관광진흥에 2건(지역축제, 작은축제 등)이 있음
  -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 관련 법규는 총 98건으로, 문화정책 51건, 문화유산 20건, 체육진흥 12건, 관광진흥 12건, 미술관개관준비 3건 등으로 구성
- 현재 조례상 충남 예술인 활동을 일정 비율 보장 또는 권장하는 것은 없지만, 개별 내에 포함시켜 시행할 수 있으며 적합한 조례로서는 문화예술진흥, 예술인 복지 증진, 예술인 창작활동지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등으로 검토됨

##### 1) 문화정책

조례	내용	비고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4조(지원 및 육성)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제15조의3(창작공간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1. 예술인 창작공간 및 활동 지원사업, 2.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 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충청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증진사업) 도지사는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1.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9.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음	
충청남도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조례	제6조(지원 사업 등) 도지사는 도내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하여 창작활동 공간, 물품, 시·군 사업 지원할 수 있음 *창작활동: 예술인이 예술작품을 창작하거나 이를 발표, 공연, 전시, 유통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함	
충청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1. 장애예술인의 창작·전시·공연 활동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조례	내용	비고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에 따른 5.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문화향유 확대 계획 수립 후 이를 근거로 지원 가능	
충남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조(사업)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나.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할 수 있음	
충청남도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활성화사업) 도지사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1. 거리공연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 2) 관광진흥

조례	내용	비고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제12조(지역축제의 지원) 도지사는 위원회의 평가 및 심의를 통하여 선정된 우수지역축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지역축제(제2종 정의):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각종 행사, 문화제,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종교행사 등 문화·예술·종교 행사, 경로잔치, 민속놀이 등이 포함됨	
충청남도 작은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신청 및 선정) 도지사는 선정된 작은축제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 5. 검토 종합 및 소결

### 1) 쟁점사항

#### (1) 평등권 및 지역차별 논점

- 쟁점: ‘충남 예술인’ 여부에 따른 차별 취급은 헌법 제11조 평등권 심사 대상. 합리적 목적·수단이면 허용되나, 과도한 배제는 위험. 국가인권위법은 ‘출신지역’ 등을 차별 사유로 포섭해 권고대상이 될 소지가 있음
- 검토: (1) 목표제/가점제 도입 검토, (2) 예외 사유(장르 희소성·규모·긴급 대체 등) 명시 필요, (3) 외부 예술인의 참여를 최대비율 제한이 아니라 지역 참여 ‘최소비율’ 목표로 유연화할 필요가 있음

## (2) 직업선택의 자유(예술인의 직업 활동)·예술의 자유·표현의 자유

- 쟁점: 공공이 ‘라인업’에 강제적 비율을 두면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예술의 자유(헌법 제22조), \*\*언론·출판·집회·결사 자유 및 검열금지(헌법 제21조)\*\*에 영향
- 검토: (1) 콘텐츠 간섭 금지(작품·프로그램 선정의 자율성 보장), (2) 절차적 통제(사후 평가·공개) 필요, (3) 보조금·시설사용 계약조건으로 ‘목표 달성 노력’과 대체충족(워크숍·오픈스튜디오 등) 인정

## (3) 조례 제정권의 한계(법률유보)

- 쟁점: 주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강행적 쿼터는 지방자치법 제28조상 법률 위임 필요. 단순 권고·가점은 제한이 약하나, 의무비율·제재를 두면 위임 근거가 요구됨
- 검토: (1) 조례에 근거 규정(목표·원칙·절차·예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벌칙·과징금 대신 보조금·시설 이용에서 평가·가점·감액 등 행정상 인센티브/디센티브로 설계 하는 것 검토

## (4) 공공조달·위탁·용역 계약상의 비차별·경쟁성

- 쟁점: 공공행사 대행·공연 위탁·홍보기획 등 용역 계약에서 지역 제한이 과하면 경쟁제한·비차별 원칙과 충돌 소지가 있음(지방계약법 체계 및 관련 시행령·기준 준수 필요)
- 검토: (1) 입찰참가자 지역 제한 금지 원칙 하에, 성과지표로 ‘지역예술인 참여율’을 계약관리·사후평가 항목에 반영, (2) 중소·지역기업 가점 등 기존 제도와 정합성 확보, (3) 대규모 국제행사·전문장르 예외 검토

## (5) 지역문화진흥 체계와의 정합성

- 의미: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지역 특성 발전을 목적(제1조), 지역 문화 정의와 추진체계를 마련. 시행령은 지역문화재단 역할 중 공정한 문화환경 조성을 포함. 쿼터의 정책목적 근거로 삼을 수 있음

- 검토: (1) 충남 예술인 역량강화-레지던시 등 보완사업 병행, (2) 지역문화재단·위원회 심의체계 연동

## (6) 예술인 권리·복지 제도와의 관계

- 의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권리보장법)」, 「예술인복지법」은 예술활동 증명 등 자격·권리 기반을 제공. ‘충남 예술인’ 판단 시 공신력 있는 기준으로 활용 가능
- 검토: 신진예술인, 프리랜서 등이 배제 되지 않도록 다양한 증빙(예술활동증명, 사업장 소재, 주요 활동지 등)을 택일·병행 허용 검토

## (7) 개인정보보호·증빙 수집

- 쟁점: ‘거주지·활동지’ 증빙 수집 시 개인정보 최소 수집·목적 외 이용 금지 원칙 준수, 보관기간·파기 명확화 필요
- 검토: (1) 필수 항목 최소화(주소 전체 대신 시·군 단위 등), (2) 보관기간(예: 회계정산 + 5년)과 파기절차 조례·지침에 명기, (3) 제3자 제공 금지·안전조치

## (8) 민간행사 적용 범위

- 쟁점: 순수민간행사에 법정 강제는 한계(표현의 자유·계약자유 침해 위험)
- 검토: 보조금 교부조건·공공시설 사용허가 조건 등 지원 연동형으로 적용하고, 의무보다 목표·가점 중심으로 접근

## (9) 정의·범위 설정(‘충남 예술인’, ‘참여’)

- 쟁점: ‘충남 예술인’ 정의 불명확 시 분쟁
- 검토: “최근 2년 내 △예술활동증명 보유 & 도내 주소지 또는 주된 활동지가 충남인

자”, “참여”는 출연·기획·기술·큐레이션·교육 등 폭넓게 인정하는 것 검토, 1인 다역 중복산정 방지 기준 마련

## (10) 비율·예외·대체충족

- 쟁점: 경직적 ‘최저비율’은 과잉금지 위반 위험
- 검토: (1) 기본 목표비율 + 가점제(예: 목표 초과 달성 시 추가 가점) 도입, (2) 예외 사유(전문장르/국제행사/공모결과 부족 등)와 절차 명확화, (3) 대체충족(지역작가 쇼케이스, 협업프로그램, 지역인력 스타핑) 인정 검토

## 2) 소결

- 충남 예술인 쿼터제는 지역문화 생태계 강화라는 공익목표는 부합하나, 「지역문화진흥법」과 정부 문화정책의 취지에 부합
- 다만 평등권·직업선택·예술의 자유와 조례 제정권 한계, 공정한 계약·입찰 원칙, 개인 정보보호 등 기본권·절차 원칙과 충돌 가능
- 권고목표제 + 가점제 + 예외·대체충족 + 개인정보 최소수집을 축으로 투명한 절차와 사후평가를 갖춘다면,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음
  - 의무적 ‘최저비율’보다는 권고목표제(예: 30%) + 심사·보조금 가점을 기본, 국제·전국 규모·전문장르 등에는 예외. 공공조달·위탁은 경쟁성·비차별 원칙을 해치지 않도록 대체 충족·사후평가로 보완



3

## 충남 예술인 현황 및 축제·행사참여 현황 및 문제점

---

제1절 충남 예술인 현황과 행사·축제 참여 실태·····	27
제2절 현황종합 및 문제점·····	35



## 제1절 충남 예술인 현황과 행사·축제 참여 실태

### 1. 충남 예술인 현황

#### 1) 충남 예술인 인원

- 충남 예술인 현황 조사는 2020년에 충남문화관광재단에서 ‘충남 예술인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그 이후 다시 조사된 바가 없음
- 이에 반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발급하고 있는 ‘예술인활동증명’은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발급한다는 점에서 예술인으로서의 자격여부를 판단하는데 근거가 됨

---

#### 예술인의 예술 활동의 증명

---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예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제도 (운영 기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한 기관 중)
  - 15개 예술분야(문학, 일반미술, 디자인/공예, 전통미술, 사진, 건축, 일반음악, 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방송, 공연, 만화 등)에서 창작, 실연, 기술 지원 및 기획 형태로 활동하는 직업 예술인을 대상으로 함
  - 예술활동증명을 위해서는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 실적이나 예술활동으로 얻은 수입 등 전문적인 예술활동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주: 1. <https://www.law.go.kr/법령/예술인복지법>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 2025년 12월 기준(출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충청남도의 예술활동증명 누적 등록 인원은 4,070명으로 파악됨
  - 이는 전국 누적 합계(200,928명) 대비 2.03%라는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치임. 이 수치는 전국 등록 예술인의 65.4%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서울 35.94%, 경기 24.88%, 인천 4.58%) 지역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으며, 비수도권 지역이 겪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음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충남	계룡시	105	113	119
	공주시	312	331	339
	금산군	71	81	83
	논산시	137	153	157
	당진시	188	207	216
	보령시	139	160	171
	부여군	96	102	105
	서산시	362	414	445
	서천군	49	62	64
	아산시	469	544	566
	예산군	104	113	115
	천안시	1,192	1,311	1,358
	청양군	16	19	20
	태안군	47	62	68
	홍성군	149	179	194
합계	3,436	3,851	4,020	

출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2) 충남 예술인 창작활동, 소득, 창작인프라 현황

### (1) 전국 대비 경제적 취약 및 '생존형 예술인' 노동 구조 심화

- 충남 예술인의 예술활동 수입, 월평균 소득, 전업 비율을 보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낮으며, 반면 겸업 비율이 높아 예술인의 경제적 환경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충남 예술인의 소득 수준은 전국 평균대비 30~40% 이상 낮으며, 반면 생계형 부업 비중이 매우 높음
- 심지어 예술활동을 중단한 예술인이 20.9%에 이를 정도로 전업 지속이 어려운 상태에 있음

항목	충남 예술인 평균	전국 예술인 평균	차이
월평균 예술활동 수입	약 45.3만 원	약 57.9만 원	-21.7% ↓
월평균 전체 소득	약 180.8만 원	약 331만 원	-45.4% ↓
예술활동 전업 비율	30.3%	55.1%	-24.8% ↓
겸업예술인으로 종사	48.8% (예술활동 중지 상태:20.9%)	44.9%	+3.9% ↑

출처: 1. 충남문화재단, 2020년 충남 예술인 실태조사 보고서(2018~2020년)  
 2. 문화체육관광부, 2021 예술인 실태조사 보고서 (2020년 기준)

- 이렇게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충남의 예술활동 수입은 ‘서바이벌 아티스트’ 노동 구조의 고착화를 의미하며, 이는 예술활동증명 획득 및 정책 지원 접근성 저하로 이어지는 빈곤의 악순환을 형성
- 또한, 예술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핵심 구조적 문제로 작용하고 있음

## (2) 창작환경 및 네트워크

- 창작 공간 보유율 측면에서 개인 창작 공간 보유 비율이 충남은 45.4%로 전국 평균(56.3%) 대비 10.9%p 낮음
- 이는 창작 활동에 필수적인 물리적 기반이 구조적으로 취약함을 의미함

항목	충남	전국	비고
개인 창작공간 보유 비율	45.4%	56.3%	공간 접근성 낮음
예술활동 중 업무상 상해 경험	7.3%	4.9%	작업환경 불안
불공정 계약 체결 경험	14.4%	11.1%	법적 보호여건 미흡
예술활동 계약체결 경험	41.8%	48.7%	행정 접근성 한계

출처: 1. 충남문화재단, 2020년 충남 예술인 실태조사 보고서(2018~2020년)  
 2. 문화체육관광부, 2021 예술인 실태조사 보고서 (2020년 기준)

- 예술인들의 네트워크 및 협업 활동의 정도를 내포하는 인구 천 명당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 수도 0.021개로 전국 평균(0.031)보다 현저히 낮아 네트워킹 및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예술인 인적 기반 측면에서 지역 예술생태계의 밀도가 낮고 지역 기반 단체의 지속적 창작 및 협업 구조가 취약한 기초 인프라의 부족은 안정적인 활동 실적과 수입 확보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낮은 정책 체감도로 귀결되는 구조적 악순환을 심화시키고 있음

지표	충남	전국 평균	서울	순위 (9개 도 지역 중)
연간 예술작품 발표 또는 참여 횟수	2.6회	3.8회	-	-
인구 만명당 등록 예술인 수	4.9명	12명	36.2명	8위
인구 천명당 전문예술법인·단체 수	0.021개	0.031개	0.028개	6위

출처: 1. 충남문화재단, 2020년 충남 예술인 실태조사 보고서(2018~2020년)  
 2. 문화체육관광부, 2021 예술인 실태조사 보고서 (2020년 기준)

## 2. 행사 및 참여현황

### 1) 조사개요

- 조사대상: 시군 및 충남문화관광재단 축제·행사, 문화예술제 등
  - 충남문화관광재단 행사로는 2024 보부상로드, 2025 보부상로드, 2024 중고제 쇼케이스 공연, 2025 제3회 중고제 축제, 2024~25 구석구석 문화배달(부여) 등을 조사함
- 조사내용: 도, 시·군별 축제 및 행사현황, 전체예산(천 원), 예술인 참여인원(명), 충남 예술인 지급예산(천 원), 충남 예술인 행사인원(명)
  - 조사자료 기준년도는 시·군의 겨우 2024년으로 하였으며, 충남문화관광재단의 경우는 2024, 25년도 축제행사를 대상으로 함
- 조사방법: 충청남도 및 시·군 협조

〈표 3-5〉 시·군 및 충남문화관광재단 축제·행사 조사 대상

시·군명	행사/축제명	행사일시/장소	행사내용
천안시	문화가 흐르는 산책로	2024.4.3.~4.7. /천안 원성천	보이는 라디오, 대학생 공연 '청춘캠퍼스, 버스킹 및 초청공연 등
공주시	2024년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	2024. 5. 3.~ 5. 6. /석장리박물관 일원	주제공연, 지역예술인 공연, 주무대 이벤트 프로그램 운영 등
	제70회 백제문화제	2024.9.28.~10.6. /금강신관공원, 공산성	"백제의 문화, 70번째 위대한 발걸음-수호신 진묘수, 웅진을 밝히다'라는 주제로, 진묘수 관련 디지털 실감 형 융복합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
보령시	2024년 제27회 보령머드축제	2024.7.19.~8.4. /보령 머드테마파크	머드 관련 체험, 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 추진 등
아산시	제63회 아산 성웅 이순신축제	2024.4.24.~4.28. /이순신종합운동장, 온양온천역 등	이순신 장군 출정식, 군악 및 의장 퍼레이드 추진 등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기리는 행사
서산시	제21회 서산해미읍성축제	2024.10.2.~10.5. /해미읍성 일원	역사 및 지혜 체험, 버스킹 공연 등 해미읍성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 등
논산시	논산딸기축제	2024.3.21.~3.24. /시민가족공원, 운동장	논산딸기축제 거리퍼레이드, 논산특산물딸기판매장 등 운영 등
계룡시	계룡軍문화축제	2024.10.2.~6. /계룡대 활주로. 시내	군악대 공연, 군 체험 프로그램, 국방 체험관 운영 등
당진시	제21회 당진면천 읍성 진달래 민속축제	2024.4.20.~4.21. /면천읍성 일원	면천읍성에서 진달래비빔밥 만들어먹기, 버스킹, 댄 스 페스티벌, 먹거리 부스 운영 등
금산군	제42회 금산세계인삼축제	2024.10.3.~10.13. /세계인삼엑스포광장	인삼전통 문화체험, 건강체험관 등 인삼 관련 프로그 램 운영
	제4회 금산삼계탕축제	2024.7.24.~7.28. /세계인삼엑스포광장	농가 돕기 농산물 판매장 운영, 희망나눔 콘서트 개 최, 삼계탕 판매코너 운영
부여군	제22회 부여서동연꽃축제	2024.6.29.~6.30. /궁남지	사랑의 연, 서동과 선화의 만남을 주제로, 점등식, kbs 찾아가는 음악회 등 개최
	제70회 백제문화제	2024.9.28.~10.6. /백제문화단지 등	"아름다운 백제, 빛나는 사비"를 주제로 문화예술공연 을 비롯 백제 문화 관련 7개 분야 40여개 프로그램 추진
청양군	청양 고추구기자 문화축제(25회)	2024.8.30.~9.1. /백제건강공원	'청양愛 美치다, 고추구기자愛 味치다'를 슬로건으 로, 드론라이팅쇼, 공연, 구기자 김밥 만들기 등 다양 한 프로그램 운영
홍성군	글로벌 바비큐 페스티벌 in 홍성	2024.11.1.~11.3. /홍주읍성 일원	차별화된 바비큐컨셉을 통해 홍성군 축산물(홍성한우 &&한돈)의 우수성 제고와 소비촉진 ※예술인 참여프로그램: 거리 퍼포먼스 공연, 버스킹 & 무빙공연
예산군	제9회 예산장터삼국축제	2024.10.23.~10.26. /예산상설시장 일원	'낭만식당'을 주제로 진행, 개막식 축하공연, 로컬푸 드 판매 등 추진
태안군	제20회 태안모래조각 페스티벌	2024.7.13. /연포해수욕장 일원	모래조각 경연대회, 모래조각 체험 프로그램 등 추진
충남문화 관광재단		2024~2025	

## 2) 충남 예술인 행사 및 축제 참여현황

### (1) 충남 예술인 참여 실태의 전반적 특징

- 행사의 주체(시·군 <표 3-6> vs 충남문화관광재단 <표 3-7>)에 따라 지역 예술인이 체감하는 문턱의 높이가 확연히 다를 수 있음
- 시·군 단위 행사<표 3-6>는 지역 내 소규모 단체와 개인 예술인들이 다수 참여하여 ‘저변 확대’ 성격이 강한 반면, 충남문화관광재단 주관 축제 <표 3-7>는 전문성과 관광 상품성이 강조되면서 참여하는 예술인의 폭이 좁고 특정 분야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 지역 안배의 불균형: 시·군 행사는 해당 지역 예술인 위주로 구성되는 수치를 보이나, 광역 단위인 문화관광축제에서는 충남 전체 예술인을 포괄하기보다 축제 개최지 인근이나 수도권 인지도가 높은 팀 위주로 수치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남

### (2) 예표 지급률 관점 분석

- 예산 관련 수치는 지역 예술인들이 받는 경제적 대우의 실태를 극명하게 보여줌
- 시·군 추진 행사<표 3-6>에서는 참여 단체 수는 많으나, 총 집행 예산 대비 지역 예술인에게 지급되는 ‘직접 출연료’의 총액은 매우 낮음
  - 이는 많은 인원이 소액의 예산을 나누어 갖는 구조로, 지역 예술인의 경제적 자생력을 확보하기에는 수치상 부족함이 드러남
- 충남문화관광재단 주관 축제<표 3-7>의 경우, 전체 예산 규모는 시·군 행사보다 크지만 지역 예술인에게 배정된 예산 비율은 오히려 낮거나 정체되어 있음
  - 대규모 축제 예산의 상당 부분이 ‘스타급 출연진’이나 ‘무대 연출’ 등 외부 용역에 투입되면서, 지역 예술인은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있음이 수치로 확인됨

### (3) 참여 인원 비율 관점 분석

- 시·군 행사 참여 인원 비율<표 3-6>은 겉보기에 높게 나타나지만 이는 지역 커뮤니티나 동호회 성격의 단체가 인원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며, 전문 예술인 개인

이 주도하는 무대 비중은 수치상 제한적임

- 충남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축제<표 3-7>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예술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음을 보여줌
  - 지역 예술인 인원 비율이 일정 수준(예: 20%) 이하로 떨어지는 수치들은, 지역 대표 예술가들이 자국 무대에서 '조연'에 머물고 있는 실태를 투영함

시군명	행사/축제명	총사업비 (천 원)	지급예산(천 원)			지급인원(명)		
			전체 예술인	충남 예술인	지급 비율	전체 예술인	충남 예술인	참여 비율
천안시	문화가 흐르는 산책로	60,000	7,300	4,870	66.7%	56	37	66.1%
공주시	2024년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	913,500	2,100	2,100	100.0%	2	2	100.0%
	제70회 백제문화제	4,700,000	77,600	77,600	100.0%	50	50	100.0%
보령시	2024년 제27회 보령머드축제	3,500,000	자료없음			자료없음		
아산시	제63회 아산 성웅 이순신축제	1,800,000	208,580	43,100	20.7%	333	168	50.5%
서산시	제21회 서산해미읍성축제	1,700,000	387,790	152,770	39.4%	860	720	83.7%
논산시	논산딸기축제	1,430,000	243,944	41,184	16.9%	158	137	86.7%
계룡시	계룡軍문화축제	500,000	22,000	22,000	100.0%	30	30	100.0%
당진시	제21회 당진면천 읍성진달래민속축제	100,000	20,500	11,000	53.7%	69	55	79.7%
금산군	제42회 금산세계 인삼축제	311,760	237,450	174,800	73.6%	688	487	70.8%
	제4회 금산삼계탕 축제	90,600	69,000	21,600	31.3%	28	12	66.7%
부여군	제22회 부여서동연꽃 축제	1,329,400	7,500	7,500	100.0%	220	220	100.0%
	제70회 백제문화제	3,500,000	11,000	11,000	100.0%	340	340	100.0%
청양군	청양 고추구기자 문화축제(25회)	940,000	113,000	8,760	7.8%	700	600	85.7%
홍성군	글로벌 바비큐 페스티벌 in 홍성	1,069,900	14,000	14,000	100.0%	50	50	100.0%
예산군	제9회 예산장터 국축제	780,000	110,300	12,300	11.2%	34	29	85.3%
태안군	제20회 태안모래 조각 페스티벌	115,000	3,300	0	0.0%	2	0	0.0%

축제명	전체예산 (천 원)	지급예산 (천 원)			참여인원 (명)		
		전체 예술인	충남 예술인	지급 비율	전체 예술인	충남 예술인	참여 비율
2024 보부상로드	65,000	14,050	14,050	100.0%	365	365	100.0%
2025 보부상로드	60,000	16,000	16,000	100.0%	413	413	100.0%
2024 중고제 쇼케이스 공연	93,000	24,000	24,000	100.0%	115	115	100.0%
2025 제3회 중고제 축제	80,000	16,000	8,000	50.0%	123	92	74.8%
2024구석구석 문화 배달 (부여)	289,760	140,030	85,230	60.9%	351	328	93.4%
2025구석구석 문화 배달(부여)	310,350	147,530	76,070	51.6%	344	313	91.0%

주: 예술인 지급예산 외 부스운영, 시스템 운영 등은 입찰로 선정된 단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충청남도 내 업체임

축제명	전체예산 (천 원)	지급예산 (천 원)			참여인원 (명)			인당지급예산(천 원, 배)		
		전체 예술인 지급예산	충남 예술인 지급예산	지급 비율 (%)	전체 예술인 참여인원	충남 예술인 참여인원	참여 비율 (%)	외부예술 인당 지급예산	충남 예술인당 지급예산	인당 지급 차이
2024 보부상로드	65,000	14,050	14,050	100.0	365	365	100.0	0		
2025 보부상로드	60,000	16,000	16,000	100.0	413	413	100.0	0		
2024 중고제 쇼케이스 공연	93,000	24,000	24,000	100.0	115	115	100.0	0		
2025 제3회 중고제 축제	80,000	16,000	8,000	50.0	123	92	74.8	258.1	87.7	2.9
2024구석구석 문화배달(부여)	289,760	140,030	85,230	60.9	351	328	93.4	2382.6	260.6	9.1
2025구석구석 문화배달(부여)	310,350	147,530	76,070	51.6	344	313	91.0	2305.2	243.7	9.5

## 제2절 현황종합 및 문제점

### 1. 충남 예술인 창작활동, 소득, 창작인프라 현황

- 충남 예술인 현황은 ① 인력 규모의 제한성, ② 낮은 창작활동 지속성, ③ 열악한 경제적 조건, ④ 취약한 창작 인프라라는 네 가지 구조적 문제가 겹쳐 나타남
- 이는 지역 예술 생태계의 낮은 밀도와 기회 부족, 지역축제·행사에서의 참여 확대 제한 등으로 이어져 **예술활동의 장기 지속 가능성을 전반적으로 위협하는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음

#### 1) 인원 규모 및 분포

- 충남 예술활동증명 등록 인원: 4,070명(2025년 기준)으로 전국의 2.03% 수준에 불과해 예술인 기반이 매우 협소함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중심의 예술 활동 구조 속에서 충남은 인구 대비 예술인 밀도도 전국 평균 대비 낮음(인구 1만 명당 4.9명, 전국 평균 12명)
  - 시·군별 규모 역시 편차가 크며, 천안·아산·서산·공주 등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창작 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함

#### 2) 창작활동 및 노동환경

- 예술활동 중단 비율 20.9%, 겸업 예술인 비율 48.8%로 전국 평균보다 높아 **창작활동 지속성과 안정성이 낮음**
  - 연간 발표·참여 횟수는 2.6회(전국 3.8회)로 창작기회가 부족하며, 지역 내 전문예술 법인·단체 수(인구 1천 명당 0.021개)는 전국 평균(0.031개)보다 낮아 **협업·네트워크 기반이 취약함**

- 불공정 계약(14.4%)·업무상 상해 경험(7.3%) 비율이 전국보다 높아 **작업환경 안정성도 낮은 편**

### 3) 소득 수준 및 경제적 조건

- **충남 예술인의 월평균 예술활동 수입 45.3만 원, 전국 평균 대비 21.7% 낮음**
  - 전체 월평균 소득은 180.8만 원으로 전국(331만 원)의 절반 수준(-45.4%), 예술활동만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움
  - 전업 예술인 비율 30.3%는 전국 대비 24.8%p 낮아 '생계형 부업' 의존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으며, 이는 창작활동 증빙·예술활동증명 유지·공공지원 접근성 감소로 이어지는 구조적 악순환을 형성함

### 4) 창작 인프라 및 환경

- 개인 창작공간 보유율이 45.4%로 전국 평균(56.3%)보다 10.9%p 낮아, **물리적 창작 기반 부족이 두드러짐**
  - 작업환경 불안정, 낮은 계약 체결률(41.8%, 전국 48.7%) 등은 행정적 접근성과 제도 활용 능력을 저해하고 있음
  - 지역 전문예술단체·법인 수가 적어 공연 기회·전시 공간·거점시설 등 **창작 생태계 전반의 인프라가 열세**이며, 이는 예술인 수입과 창작기회 부족을 다시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2. 충남 예술인 행사 및 축제 참여현황

### 1) 예산 배분의 극단적 양극화

- 충남 예술인 지급률은 **행사 간 편차가 너무 크며, 0~100%라는 극단적 차이**를 보임
  - 특히 인지도 중심의 관광형 축제에서는 지역 예술인의 예산 접근성이 매우 낮게 나타남

## 2) 참여 역할의 부수화

- 지역 예술인이 참여하더라도 주도적인 프로그램보다는 ‘보조적·부수적 프로그램’에 배치되는 사례가 다수
  - 참여율이 80~100%인 행사와 20% 이하 축제 사이의 격차가 뚜렷이 나타남

## 3) 예산 대비 단가 격차 문제

- 외부 예술인과 지역 예술인 간의 1인당 지급액 차이가 최대 9배까지 벌어지는 사례가 나타남
  - 지역 예술인의 전문성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가 미비

## 4) 참여 구조 관리·모니터링 시스템 부재

- 시·군별로 예술인 참여율 관리를 위한 기준이나 정책 목표 부재하며, 사후 평가에서도 ‘지역예술인 환류율’ 지표가 미흡
- 그 결과 사업 기획 단계부터 외부 의존형 구조가 강화

## 3. 종합 분석 및 소결

- 충남 예술인의 구조적 취약성(소득, 창작공간, 네트워크 부족)과 결합하여 충남 예술 생태계의 자생력을 저해하고 있음
  - 1) 창작기반 취약 → 2) 지역 행사축제 참여 기회 축소 → 3) 경제적 보상 미흡 → 4) 예술 활동 지속 불가능 → 5) 지역 인력 풀 축소 → 다시 1)로 연결
- 결론적으로, 현재의 자율적인 참여 구조만으로는 충남 예술인의 활동 공간 확보와 생태계 복원과 활성화가 어렵다는 점이 객관적 지표(수입, 참여율, 지급액 격차 등)를 통해 나타남



4

## 충청남도 예술인 쿼터제 도입에 대한 인식조사

---

제1절 조사개요.....	41
제2절 조사분석 및 결과.....	45
제3절 분석종합.....	55



## 제1절 조사개요

### 1. 조사대상, 내용 및 방법

#### 1) 조사대상, 장소, 기간 및 방법

- 충남도민, 예술인을 대상으로 총260명에 대해 조사 후 분석

조사대상(부수)	조사장소	기간	방법
충남 도민 (205명)	내포신도시, 천안, 공주	2025.10~11	설문조사지 배포 후 수거
충남 예술인 (55명)	내포신도시, 천안	2025.11~12	설문조사지 배포 후 수거

#### 2) 조사내용

- 조사내용은 충남 예술인 쿼터제 도입 필요성, 정책목표, 도입시 고려사항, 기준, 설문자 응답자 일반사항 등으로 구성

조사내용	조사 세부 내용	비고
충남 예술인 쿼터제 도입 필요성과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요성 ①필요, ②필요하지 않다.</li> <li>•필요하지 않은 이유 ①평등권 및 지역차별, ②예술인 간 불평등 야기, ③행사 품질의 미흡, ④자율성 침해, ⑤행정적 부담 증가, ⑥기타</li> </ul>	개관식  객관식 (중복선택 허용)
충남 예술인 쿼터제 정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책목표 ①충남 예술인 생태계 보호 ②충남 예술인 활동 지원과 역량 강화 ③충남 예술인 경제복지 증진 ④충남 문화예술의 정체성 강화 ⑤충남 문화예술의 문화적 다양성 확대 ⑥충남 문화예술의 브랜드화와 산업 발전 ⑦기타</li> </ul>	객관식 (중복선택 허용)

조사내용	조사 세부 내용		비고
쿼터제 도입시 고려사항	•기준설정	①참여인원, ②예산, ③조합(인원, 예산)	객관식
	•예산확보	①기존 예산 내, ②예산 외, ③조합(기존, 기존 외)	객관식
	•장르구분	①구분, ②구분 없음	객관식
	•세대구분	①구분(기성, 청년), ②구분 없음	객관식
	•도입방식	①의무형, ②유도형, ③권장형	객관식
쿼터제 도입 비율	•참여인원기준	①10% 미만 ②10% 이상 ③20% 이상 ④30% 이상 ⑤40% 이상	객관식
	•예산기준	①10% 미만 ②10% 이상 ③20% 이상 ④30% 이상 ⑤40% 이상	객관식
설문응답자 일반사항	•가구원수, •성별, •연령, •거주지		주관식
	•학력		객관식
	•예술인의 경우 활동 예술장르, 직•업형태, •겸업직업		객관식

### 3) 설문응답자 특성

#### (1) 충남도민

- 설문응답자 성별 비율은 남성 84명(41%), 여성 120명(58.5%), 연령대 분포는 10대 9명(4.4%), 20대 33명(16.1%), 30대 51명(24.9%), 40대 33명(16.1%), 50대 36명(17.6%) 등으로 전 연령 구간의 의견이 반영됨
- 응답자 거주지는 충남지역을 대상으로 홍성군 74명(36%), 공주시 43명(21%), 예산군 33명(16%), 천안 30명(15%) 등임

#### ① 가구원수

가구원수	합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무응답
응답 수	205	29	48	48	50	19	2	9
비율	100.0%	14.1%	23.4%	23.4%	24.4%	9.3%	1.0%	4.4%

#### ② 성별 및 연령

성별	합계 (비율)	남	여	무응답
응답 수(명)	205 (100.0%)	84 (41.0%)	120 (58.5%)	1 (0.5%)

연령대	합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무응답
응답 수	284	9	33	51	33	36	25	6	12
비율	100.0%	4.4%	16.1%	24.9%	16.1%	17.6%	12.2%	2.9%	5.9%

## ③ 거주지

구분	합계	홍성	공주	예산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보령	청양	논산	계룡	부여	무응답
응답 수	284	74	43	33	30	6	5	4	3	1	1	0	0	5
비율(%)	100.0	36.1	21.0	16.1	14.6	2.9	2.4	2.0	1.5	0.5	0.5	0	0	2.4

## ④ 학력

구분	합계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이상	무응답
응답 수(명)	205	11	25	7	133	26	3
비율(%)	100.0	5.4	12.2	3.4	64.9	12.7	1.5

## (2) 충남 예술인

- 설문응답자 성별 비율은 남성 36명(61.8%), 여성 20명(36.4%), 연령대 분포는 20대 4명(7.3%), 30대 12명(21.8%), 40대 11명(20.2%), 50대 16명(29.1%) 등임
- 응답자 거주지는 충남지역의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천안시 26명(47.3%), 아산시 13명(23.6%), 서산시 5명(9.1%), 홍성군 4명(7.3%) 순임

## ① 가구원수

가구원수	합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무응답
응답 수	205	10	20	13	4	3	1	4
비율	100.0%	18.2%	36.4%	23.6%	7.3%	5.5%	1.8%	7.3%

## ② 성별 및 연령

성별	합계 (비율)	남	여	무응답
응답 수(명)	55(100.0%)	34(61.8%)	20(36.4%)	1(1.8%)

연령대	합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무응답
응답 수	55	0	4	12	11	16	6	1	5
비율	100.0%	0.0%	7.3%	21.8%	20.2%	29.1%	10.9%	1.8%	9.1%

③ 거주지

구분	합계	홍성	공주	예산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보령	청양	논산	계룡	부여	무응답
응답 수	55	4	0	1	26	13	5	1	2	0	0	1	1	1
비율(%)	100.0	7.3%	0.0%	1.8%	47.3%	23.6%	9.1%	1.8%	3.6%	0.0%	0.0%	1.8%	1.8%	1.8%

④ 학력

구분	합계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이상	무응답
응답 수(명)	55	0	6	5	15	28	1
비율(%)	100.0	0.0	10.9	9.1	27.3	50.9	1.8

⑤ 활동예술장르(중복응답)

구분	합계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복수 (응복합)	무응답
응답 수 (명)	63	7	21	6	0	13	1	2	3	2	2	1	4	1
비율(%)	100	11.1	33.3	9.5	0.0	20.6	1.6	3.2	4.8	3.2	3.2	1.6	6.3	1.6

⑥ 직업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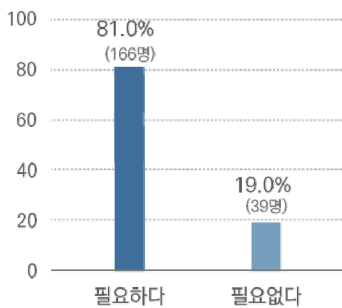
구분	합계	전업	겸업	무응답
응답 수(명)	55	16	23	16
비율(%)	100	29.1	41.8	29.1

## 제2절 조사분석 및 결과

### 1. 충남도민 의견

#### 1) 충남 예술인 쿼터제 도입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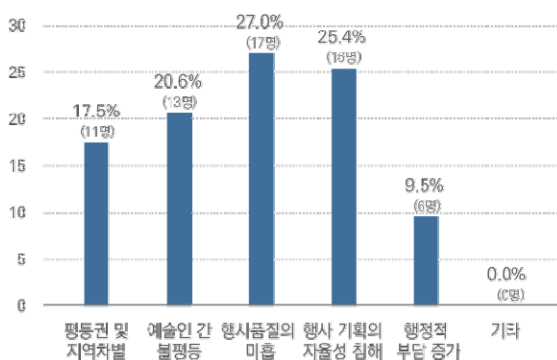
- 충남 예술인 쿼터제 도입의 필요성 설문 응답자 205명 중 166명(81.0%)은 충남 예술인 쿼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39명(19%)은 필요 없다고 조사됨



충남 예술인 쿼터제 도입 필요성	합계		필요하다		필요없다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응답 수	205	100%	166	81.0	39	19.0

#### 1)-2 충남 예술인 쿼터제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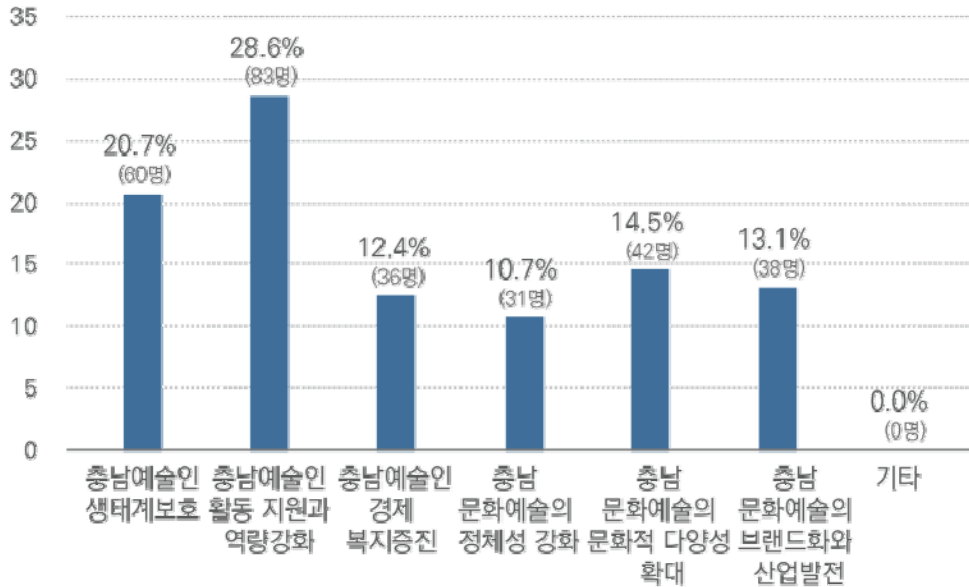
-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행사 품질의 미흡 17명(27.0%), 행사 기획의 자율성 침해 16명(25.4%), 예술인 간 불평등 13명(20.6%), 평등권 및 지역차별 11명(17.5%), 행정적 부담 증가 6명(9.5%) 순으로 조사됨



충남 예술인 쿼터제 도입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응답 수(중복응답)	
	빈도(명)	비율(%)
평등권 및 지역차별	11	17.5
예술인 간 불평등	13	20.6
행사품질의 미흡	17	27.0
행사 기획의 자율성 침해	16	25.4
행정적 부담 증가	6	9.5
기타	0	0
합계	63	100

## 2) 충남 예술인 쿼터제의 정책 목표

- 충남 예술인 쿼터제의 정책(사업) 목표로는 충남 예술인 활동지원과 역량강화 83명 (28.6%), 충남 예술인 생태계보호 60명(20.7%), 충남문화예술의 문화적 다양성 확대 42명(14.5%), 충남 문화예술의 브랜드화와 산업발전 38명(13.1%) 충남 예술인 경제 복지 증진 36명(12.4%), 충남문화예술의 정체성 강화 31명(10.7%)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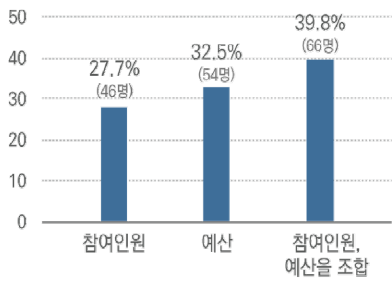


충남 예술인 쿼터제의 정책 목표	응답 수(중복응답)	
	빈도(명)	비율(%)
1. 충남 예술인 생태계보호	60	20.7
2. 충남 예술인 활동지원과 역량강화	83	28.6
3. 충남 예술인 경제 복지증진	36	12.4
4. 충남 문화예술의 정체성 강화	31	10.7
5. 충남 문화예술의 문화적 다양성 확대	42	14.5
6. 충남 문화예술의 브랜드화와 산업발전	38	13.1
7. 기타	0	0
합계	290	100

### 3) 쿼터제 도입 시 부문별 중요 사항

#### (1) 쿼터제 기준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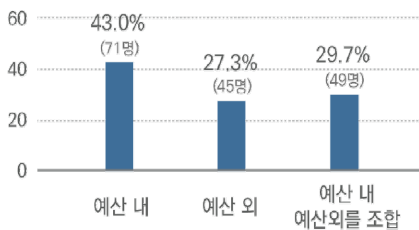
- 충남 예술인 쿼터제 도입시 쿼터제 기준 설정에 대한 사항으로 행사 프로그램에 참여인원과 예산을 조합한다에 66명(39.8%), 예산을 기준으로 한다 54명(32.5%), 참여인원을 기준으로 한다가 46명(27.7%)으로 조사됨



쿼터제 도입시 기준사항	응답 수	
	빈도(명)	비율(%)
① 행사프로그램에 참여인원을 기준	46	27.7
② 행사프로그램에 예산을 기준	54	32.5
①, ② 조합	66	39.8
합계	166	100

#### (2) 예산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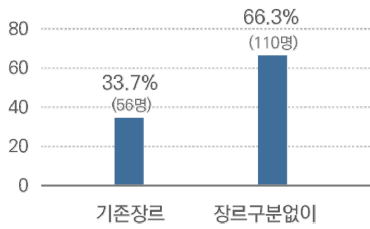
- 예산확보는 기존 행사 예산 내에서 일정 비율을 확보한다 71명(43.0%), 일정비율을 예산 내 확보하는 방법과 예산 외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방법을 조합하여 확보한다가 49명(29.7%)으로 나타남



예산 확보	응답 수	
	빈도(명)	비율(%)
① 기존 행사 예산 내에서 일정 비율을 확보	71	43.0
② 기존 행사 예산 외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	45	27.3
①, ② 조합하여 확보	49	29.7
합계	165	100

#### (3) 장르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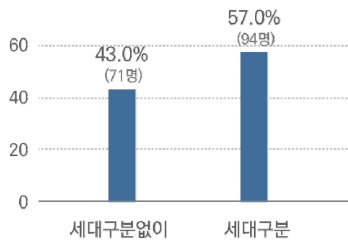
- 장르 구분 없이가 110명(66.3%), 기존 장르 고려가 56명(33.7%)으로 나타남



장르 구분	응답 수	
	빈도(명)	비율(%)
기존 장르를 고려하여 도입-문화예술진흥법상 장르 내	56	33.7
장르 구분 없이 도입-융복합 장르 반영	110	66.3
합계	166	100

#### (4) 세대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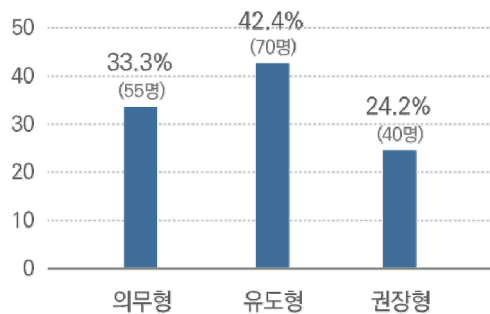
- 기성(원로, 중견), 청년(만39세 이하) 등을 구분하여 신진·청년 예술인의 참여를 보장한 다가 94명(57.0%) 구분하지 않는다 71명(43.0%)으로 나타남



세대 구분	응답 수	
	빈도(명)	비율(%)
기성(원로, 중견), 청년(만 39세 이하)등을 구분하지 않음	71	43.0
기성(원로, 중견), 청년(만 39세 이하)등을 구분하여 신진·청년 예술인의 참여를 보장	94	57.0
합계	165	100

#### (5) 도입방식

- 도입방식에 있어서 유도형 70명(42.2%), 의무형 55명(33.3%), 권장형 40명(24.2%)으로 나타남



도입방식	응답 수	
	빈도(명)	비율(%)
의무형	55	33.3
유도형	70	42.4
권장형	40	24.2
합계	16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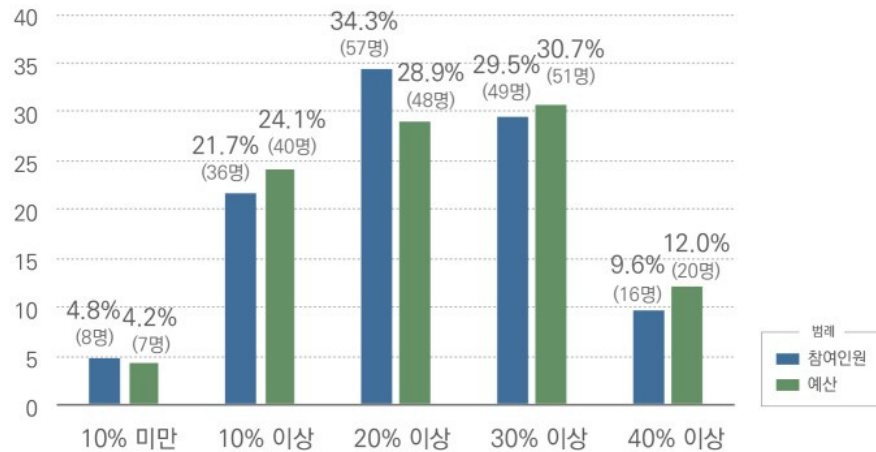
#### 4) 쿼터제 도입 시 참여 비율

##### (1) 참여인원 기준

- 쿼터제 도입 시 기준별 비율에서는 참여인원을 기준으로 할 때 20% 이상이 57명(34.3%), 30% 이상 49명(29.5%), 10% 이상 36명(21.7%)으로 조사됨

##### (2) 예산 기준

- 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는 30% 이상 51명(30.7%), 20% 이상 48명(28.9%), 10% 이상 40명(24.1%)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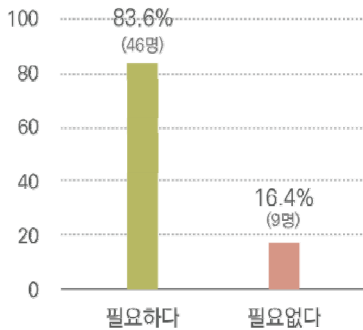


참여인원 기준	응답 수		예산 기준	응답 수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10% 미만	8	4.8	10% 미만	7	4.2
10% 이상	36	21.7	10% 이상	40	24.1
20% 이상	57	34.3	20% 이상	48	28.9
30% 이상	49	29.5	30% 이상	51	30.7
40% 이상	16	9.6	40% 이상	20	12.0
합계	166	100	합계	166	100

## 2. 충남 예술인 의견

### 1) 충남 예술인 쿼터제 도입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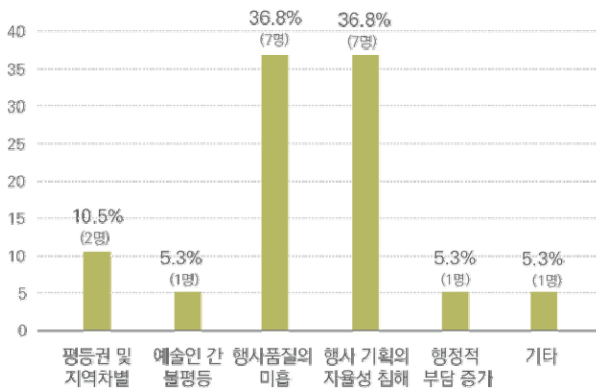
- 충남 예술인 쿼터제 도입의 필요성 설문 응답자 55명 중 46명(83.6%)은 충남 예술인 쿼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9명(16.4%)은 필요 없다고 조사됨



충남 예술인 쿼터제 도입 필요성	합계		필요하다		필요없다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응답 수	55	100%	46	83.6	9	16.4

### 1)-2 충남 예술인 쿼터제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

- 충남 예술인 쿼터제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행사 품질의 미흡 7명(36.8%), 행사 기획의 자율성 침해 7명(36.8%), 평등권 및 지역차별 2명(10.5%) 순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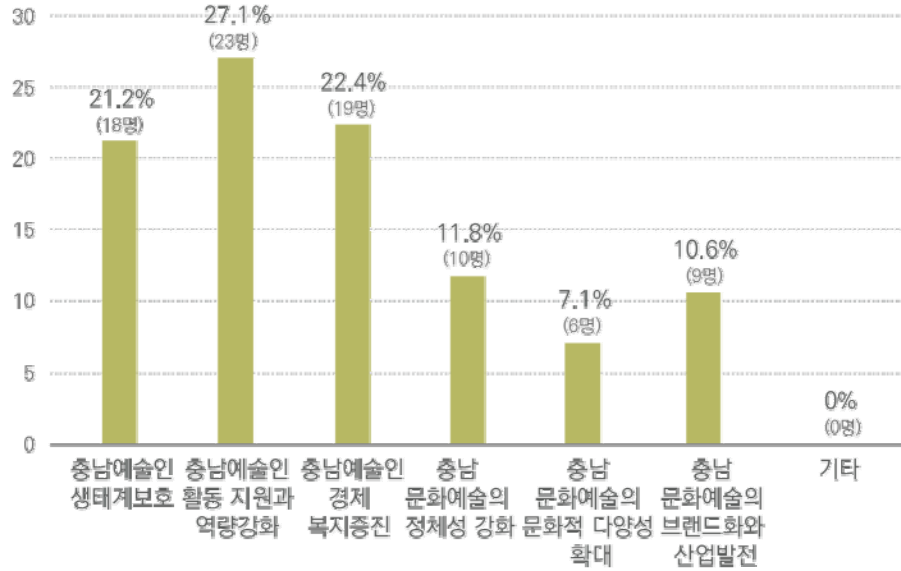


충남 예술인 쿼터제 도입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응답 수(중복응답)	
	빈도(명)	비율(%)
평등권 및 지역차별	2	10.5
예술인 간 불평등	1	5.3
행사품질의 미흡	7	36.8
행사 기획의 자율성 침해	7	36.8
행정적 부담 증가	1	5.3
기타	1	5.3
합계	19	100.0

### 2) 충남 예술인 쿼터제의 정책 목표

- 충남 예술인 쿼터제의 정책(사업) 목표로는 충남 예술인 활동지원과 역량강화 23명(27.1%), 충남 예술인 경제 복지 증진 19명(22.4%), 충남 예술인 생태계보호 18명

(21.2%), 충남문화예술의 정체성 강화 10명(11.8%), 충남문화예술의 브랜드화와 산업발전 9명(10.6%), 충남문화예술의 문화적 다양성 확대 6명(7.1%)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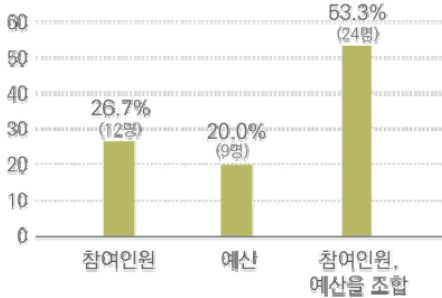


충남 예술인 쿼터제의 정책 목표	응답 수(중복응답)	
	빈도(명)	비율(%)
1. 충남 예술인 생태계보호	18	21.2
<b>2. 충남 예술인 활동지원과 역량강화</b>	<b>23</b>	<b>27.1</b>
3. 충남 예술인 경제 복지증진	19	22.4
4. 충남 문화예술의 정체성 강화	10	11.8
5. 충남 문화예술의 문화적 다양성 확대	6	7.1
6. 충남 문화예술의 브랜드화와 산업발전	9	10.6
7. 기타	0	0
합계	85	100

### 3) 쿼터제 도입 시 부문별 중요 사항

#### (1) 쿼터제 기준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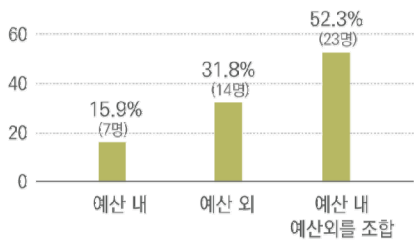
- 행사 프로그램에 참여인원 + 예산 조합이 24명(53.3%), 참여인원 기준 12명(26.7%), 예산 기준이 9명(20.0%)로 조사



쿼터제 도입시 기준사할	응답 수	
	빈도(명)	비율(%)
① 행사프로그램에 참여인원을 기준	12	26.7
② 행사프로그램에 예산을 기준	9	20.0
<b>①, ② 조합</b>	<b>24</b>	<b>53.3</b>
합계	45	100

### (2) 예산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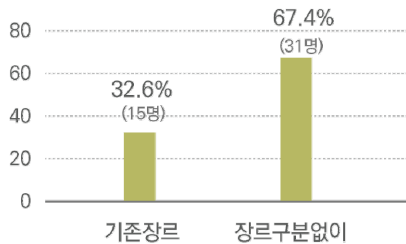
- 예산 내뿐 아니라 예산 외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방법을 조합하여 확보한다가 23명 (52.3%), 기존 행사 예산 외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한다 14명(31.8%)으로 나타남



예산 확보	응답 수	
	빈도(명)	비율(%)
① 기존 행사 예산 내에서 일정 비율을 확보	7	15.9
② 기존 행사 예산 외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	14	31.8
<b>①, ② 조합하여 확보</b>	<b>23</b>	<b>52.3</b>
합계	44	100

### (3) 장르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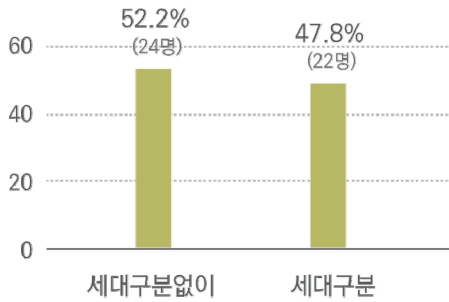
- 장르 구분 없이 도입-융복합 장르를 반영한다. 31명(67.4%), 기존 장르를 고려하여 도입한다가 15명(32.6%)으로 나타남



장르 구분	응답 수	
	빈도(명)	비율(%)
기존 장르를 고려하여 도입-문화예술진흥법상 장르 내	15	32.6
<b>장르 구분 없이 도입-융복합 장르 반영</b>	<b>31</b>	<b>67.4</b>
합계	46	100

#### (4) 세대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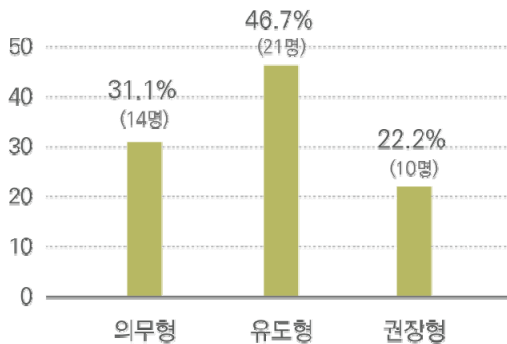
- 기성(원로, 중견), 청년(만39세 이하)등을 구분하지 않는다 24명(52.2%), 기성, 청년등을 구분하여 신진·청년 예술인의 참여를 보장한다가 22명(47.8%)으로 나타남



세대 구분	응답 수	
	빈도(명)	비율(%)
기성(원로, 중견), 청년(만 39세 이하)등을 구분하지 않음	24	52.2
기성(원로, 중견), 청년(만 39세 이하)등을 구분하여 신진·청년 예술인의 참여를 보장	22	47.8
합계	46	100

#### (5) 도입방식

- 도입방식에 있어서 유도형 21명(46.7%), 의무형 14명(31.3%), 권장형 10명(22.2%)으로 나타남



도입방식	응답 수	
	빈도(명)	비율(%)
의무형	14	31.1
유도형	21	46.7
권장형	10	22.2
합계	4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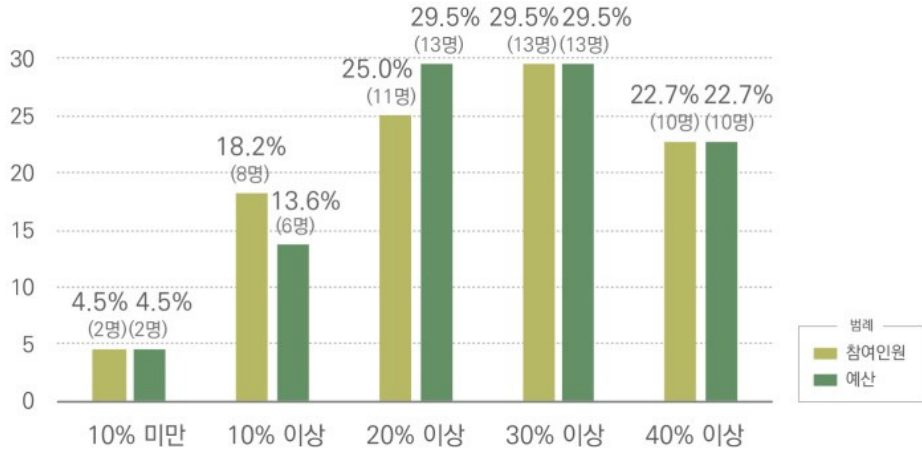
### 4) 쿼터제 도입 시 참여 비율

#### (1) 참여인원 기준

쿼터제 도입 시 기준별 비율에서는 참여인원을 기준으로 할 때 30% 이상이 13명(29.5%), 20% 이상 11명(25.0%), 40% 이상 10명(22.7%)으로 조사됨

## (2) 예산 기준

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는 20% 이상, 30% 이상이 각각 13명(29.5%), 40% 이상 10명(22.7%), 10% 이상 6명(13.6%) 순으로 나타남



참여인원 기준	응답 수		예산 기준	응답 수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10% 미만	2	4.5	10% 미만	2	4.5
10% 이상	8	18.2	10% 이상	6	13.6
20% 이상	11	25.0	20% 이상	13	29.5
30% 이상	13	29.5	30% 이상	13	29.5
40% 이상	10	22.7	40% 이상	10	22.7
합계	44	100	합계	44	100

## 제3절 분석종합

### 1. 충남도민과 충남 예술인 간 의견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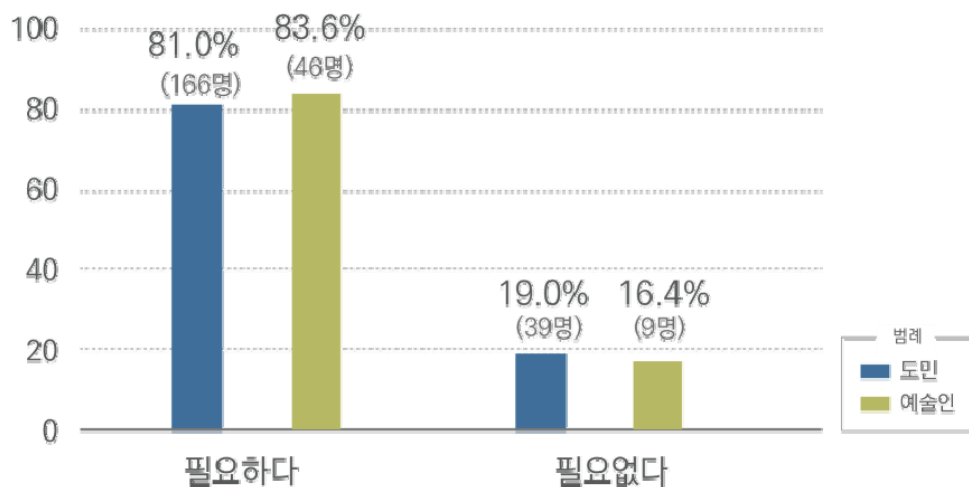
#### 1) 충남 예술인 쿼터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

##### (1) 공통점

- 두 집단 모두 80% 이상이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제도 도입 자체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은 두 그룹 모두 높은 편
- ‘필요 없다’는 응답은 두 집단 모두 20% 안쪽의 소수에 그침

##### (2) 차이점

- 예술인이 도민보다 찬성 비율이 약간 더 높고(83.6% vs 81.0%), 반대 비율은 더 낮음(16.4% vs 19.0%).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예술인에게 제도 필요성이 더 강하게 체감되고 있다고 해석 가능



충남 예술인 쿼터제 도입 필요성	합계		필요하다		필요없다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충남도민	205	100%	166	81.0	39	19.0
충남 예술인	55	100%	46	83.6	9	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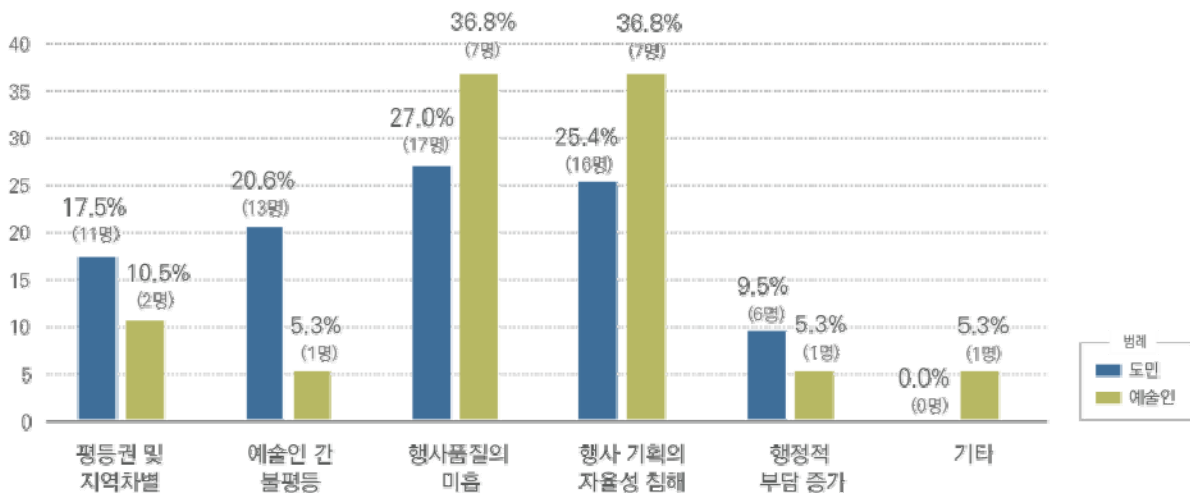
## 2) 충남 예술인 쿼터제 도입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 (1) 공통점

- 두 집단 모두, 반대하는 이유의 핵심은 '품질'과 '기획 자율성'. 쿼터제가 도입되더라도 행사 완성도와 기획의 창의성·유연성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매우 강함

### (2) 차이점

- 도민은 '행사 수준 저하 + 기획 자율성 침해'를 1·2순위로 우려하면서, 동시에 '예술인 내부의 형평성 문제'와 '지역 간 평등권'도 상당히 중요한 이유로 보고 있음
- 예술인은 '행사 품질(완성도) 저하와 기획 자율성 침해를 거의 같은 최고 수준(각 36.8%)'으로 우려하고, '공정성·형평성(평등권, 예술인 간 불평등)'에 대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



충남 예술인 쿼터제 도입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도민(중복응답)		예술인(중복응답)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평등권 및 지역차별	11	17.5	2	10.5
예술인 간 불평등	13	20.6	1	5.3
행사품질의 미흡	17	27.0	7	36.8
행사 기획의 자율성 침해	16	25.4	7	36.8
행정적 부담 증가	6	9.5	1	5.3
기타	0	0	1	5.3
합계	63	100	19	100.0

### 3) 충남 예술인 쿼터제 도입의 정책 목표(추구해야 할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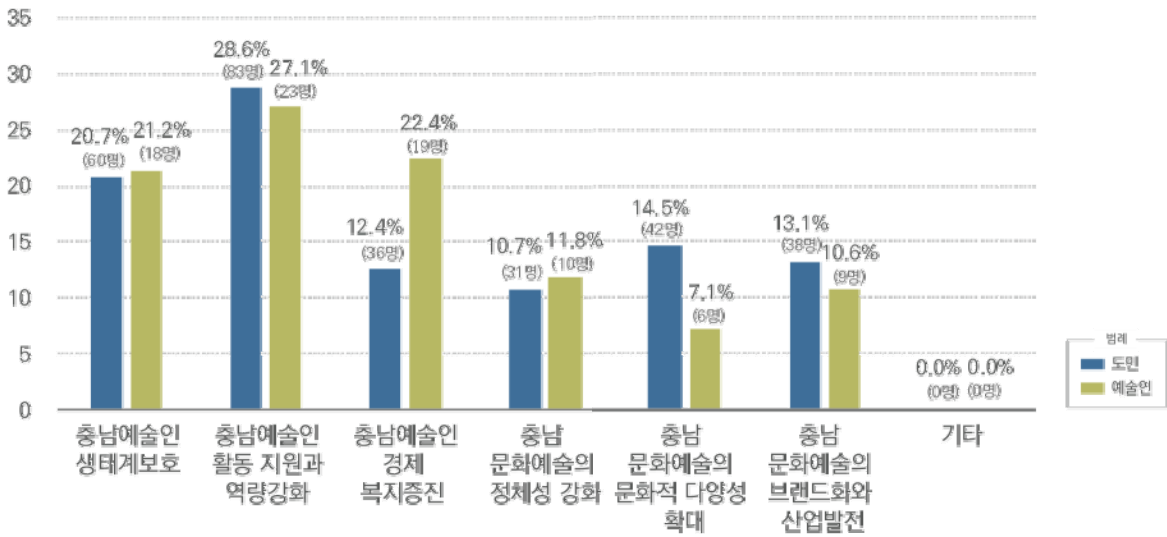
#### (1) 공통점

- 두 그룹 모두 쿼터제를 ‘예술인 활동기회·역량 강화’ 수단으로 인식. 쿼터제가 단순한 숫자 채우기가 아니라 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성장하기 위한 기반으로 이해되고 있음

#### (2) 차이점

- 예술인은 ‘경제·복지 증진(22.4%)’이 2순위로 쿼터제를 실질적인 소득·일자리 개선 장치로 보고 있음
- 도민은 ‘문화적 다양성(14.5%)’과 브랜드·산업발전(13.1%) 비중이 더 크고, 경제·복지(12.4%)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

⇒ 도민은 문화적·지역경제적 효과 중심, 예술인은 생계·복지 중심으로 필요성을 인식



충남 예술인 쿼터제의 정책 목표	도민(중복응답)		예술인(중복응답)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1. 충남 예술인 생태계보호	60	20.7	18	21.2
2. 충남 예술인 활동지원과 역량강화	83	28.6	23	27.1
3. 충남 예술인 경제 복지증진	36	12.4	19	22.4
4. 충남 문화예술의 정체성 강화	31	10.7	10	11.8
5. 충남 문화예술의 문화적 다양성 확대	42	14.5	6	7.1
6. 충남 문화예술의 브랜드화와 산업발전	38	13.1	9	10.6
7. 기타	0	0	0	0
합계	290	100	8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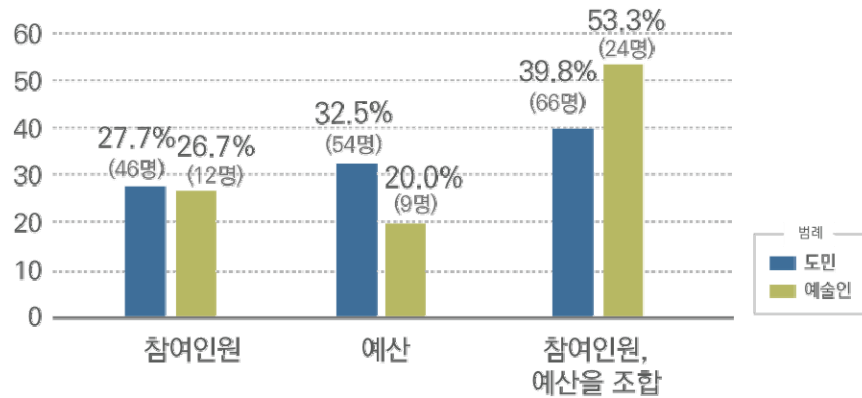
#### 4) 쿼터제 기준 설정(참여 인원 vs 예산 배분)

##### (1) 공통점

- 두 그룹 모두 하나의 단일 기준보다 ‘참여 인원 + 예산’을 조합하는 방식에 긍정적
  - 공통적으로 나타는 이유로는 첫째, 행사 규모·장르·특성에 따라 ‘인원 중심’ 또는 ‘예산 중심’ 필요성이 달라짐. 예를 들면, 무용·연극·공연은 인건비 비중이 높아 예산 기준이 적합, 반면 전시·문학 등은 참여 인원 기준이 더 타당. 둘째, 쿼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두 요소를 함께 관리할 필요성을 제기. 단순히 인원만 맞추면 ‘비중은 적는데 형식적 참여’가 될 가능성이 있음. 예산만 맞추면 ‘실제 참여 인원은 소수’가 될 위험이 있음. 따라서 두 기준을 함께 설정하면 형식적 운영 우려를 줄일 수 있음

## (2) 차이점

- 예술인은 현장 운영·생계 관점에서 예술인의 실질적 지원 효과를 고려해 예산 기준 또는 조합 기준을 선호



쿼터제 도입시 기준사항	도민		예술인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① 행사프로그램에 참여인원을 기준	46	27.7	12	26.7
② 행사프로그램에 예산을 기준	54	32.5	9	20.0
①, ② 조합	66	39.8	24	53.3
합계	166	100	45	100

## 5) 예산 확보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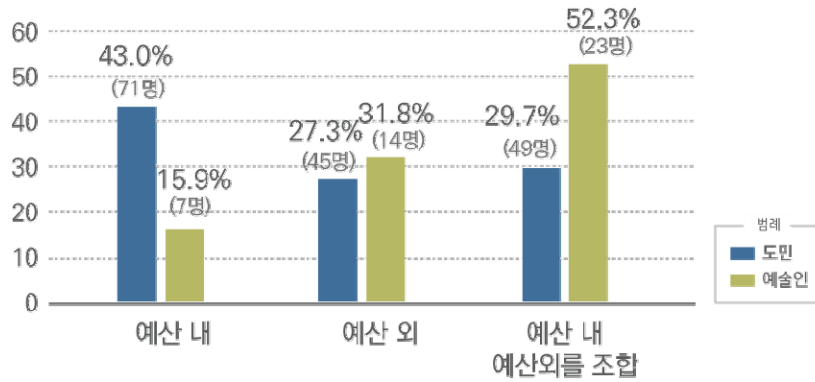
### (1) 공통점

- 두 그룹 모두 '기존 예산 외 별도예산 확보'는 '기존 예산 내' 또는 '예산 내 + 예산 외'를 하는데 차선적으로 선택. 두 그룹간 차이에서 '조합' 모델은 도민과 예술인의 요구를 이중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실행 프레임워크임을 시사

### (2) 차이점

- 도민은 '예산 내' (기존 예산 재분배)를 43.0%로 가장 많이 선택. 이러한 결과는 도민들이 쿼터제 도입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문-1에서 81.0% 찬성), 이 정책이 곧바로 세금 부담 증가나 새로운 재정적 지출을 수반하는 것에 대한 고민 시사

- 예술인은 ‘1, 2 조합’을 52.3%라는 압도적인 비율로 가장 선호했으며, ‘예산 외’ 선호도(31.8%)까지 합치면 전체 예술인의 84.1%가 새로운 재원의 확보 또는 기존 재원과의 혼합을 통한 재원 확장을 요구



예산 확보	도민		예술인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① 기존 행사 예산 내에서 일정 비율을 확보	71	43.0	7	15.9
② 기존 행사 예산 외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	45	27.3	14	31.8
①, ② 조합하여 확보	49	29.7	23	52.3
합계	165	100	4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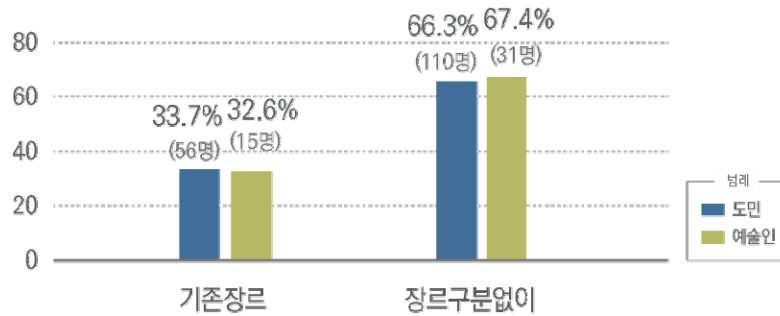
## 6) 장르 구분 방식

### (1) 공통점

- 도민과 예술인인 모두 충남 예술인 쿼터제를 운영함에 있어 ‘장르 구분 없이’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에 압도적으로 동의하고 있음
  - 이는 예술의 광범위한 포괄성 및 다양성 추구, 특정 장르의 배제와 차별의 최소화, 정책 수용성 제고 측면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됨

### (2) 차이점

- 미미한 수치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이 장르 구분을 더욱 강력하게 반대하는 경향은 현장 예술인의 현실적 우려를 반영



장르 구분	도민		예술인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기존 장르를 고려하여 도입-문화예술진흥법상 장르 내	56	33.7	15	32.6
장르 구분 없이 도입-융복합 장르 반영	110	66.3	31	67.4
합계	166	100	4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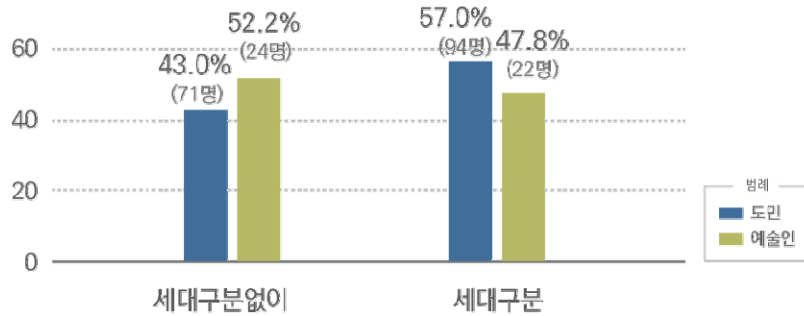
## 7) 세대 구분

### (1) 공통점

- 두 그룹 모두 '세대 구분' 찬반 의견이 40% 이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어 어떤 방향으로 결정하더라도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음

### (2) 차이점

- 도민은 '세대 구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7.0%(빈도 94)로 과반수를 차지하며, 정책 집행의 구조화와 투명성을 요구하는 외부자의 시각을 반영
- 예술인 내 찬반 의견 격차가 약 4.3%p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세대 구분이 예술인 커뮤니티 내부의 핵심 갈등 영역임을 보여줌
- 예술인 중에서도 청년 예술가, 혹은 경력 단절 등으로 인해 기회 보장을 절실히 요구하는 집단이 쿼터제를 통해 세대별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세대 구분	도민		예술인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기성(원로, 중견), 청년(만 39세 이하)등을 구분하지 않음	71	43.0	24	52.2
기성(원로, 중견), 청년(만 39세 이하)등을 구분하여 신진·청년 예술인의 참여를 보장	94	57.0	22	47.8
합계	165	100	4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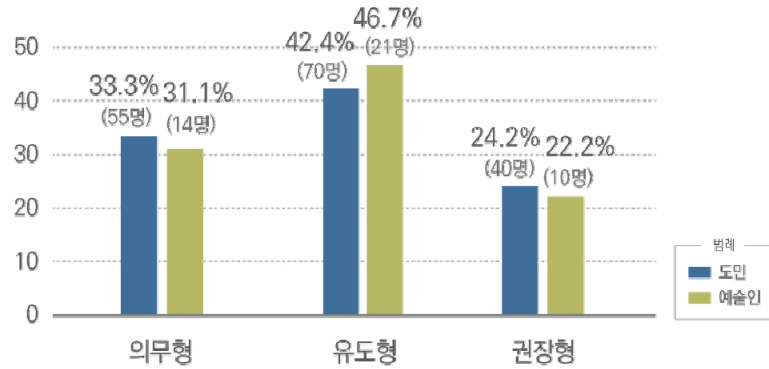
## 8) 도입 방식(의무형 / 유도형 / 권장형)

### (1) 공통점

- 도민과 예술인 그룹의 응답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공통점은 ‘유도형’ 방식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와, ‘권장형’ 방식에 대한 낮은 선호도로 나타남
- 도민, 예술인 모두 쿼터제가 강제적 할당보다는 긍정적인 인센티브, 재정적 지원, 혹은 가점 부여 등의 방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 이는 정책이 벌칙이나 규제 중심이 아닌, 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그 이점을 제공하는 지원 정책으로 인식되기를 바라는 공통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됨

### (2) 차이점

- 전반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도입 방식에 대한 인식은 도민과 예술인 사이에 미묘한 차이를 보이며, 이는 정책이 지향해야 할 가치의 우선순위 차이로 해석됨



도입방식	도민		예술인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의무형	55	33.3	14	31.1
유도형	70	42.4	21	46.7
권장형	40	24.2	10	22.2
합계	165	100	45	100

## 9) 도입 비율(참여 인원 vs 예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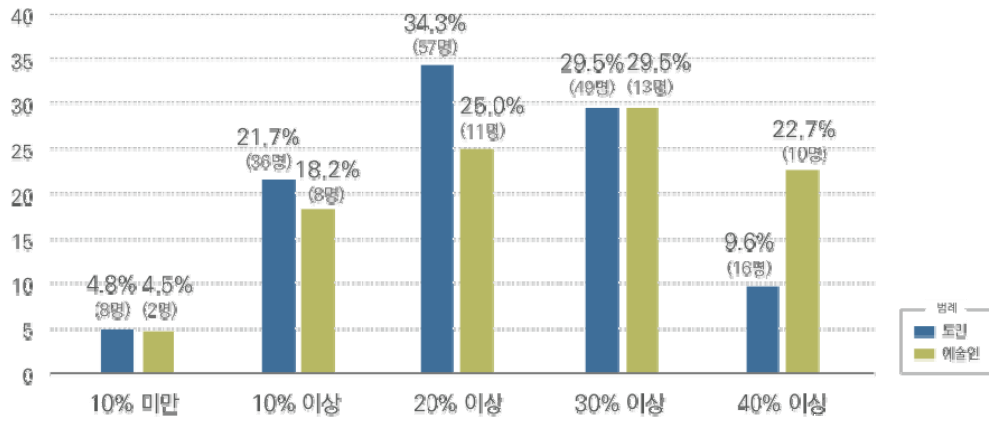
### (1) 공통점

- 도민과 예술인 모두 '10% 미만'이라는 최소 비율에 대한 선호도가 5% 미만으로 극히 낮게 나타남
- 두 그룹 모두 '20% 이상' 또는 그 이상의 비율을 합산하여 약 90%에 달하는 강력한 지지를 보냄

### (2) 차이점

#### ① 참여인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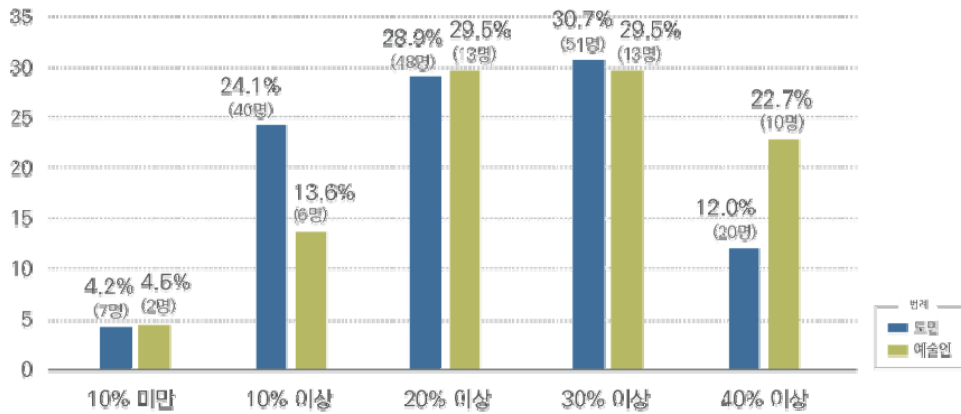
- 도민은 '20% 이상'을 가장 선호하는 비율(34.34%)로 꼽았음. 이는 현실적인 정책 수용성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한 중도적인 최적치를 찾는 경향을 반영
- 예술인은 '30% 이상'을 가장 선호하는 비율(29.55%)로 꼽아, 도민보다 더 높은 참여 비율을 요구



참여인원 기준	도민		예술인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10% 미만	8	4.8	2	4.5
10% 이상	36	21.7	8	18.2
20% 이상	57	34.3	11	25.0
30% 이상	49	29.5	13	29.5
40% 이상	16	9.6	10	22.7
합계	166	100	44	100

② 예산 기준

- 중간 비율 선호의 차이: 도민 그룹은 ‘10% 이상’ 비율(24.10%)에 대해 예술인 그룹 (13.64%)보다 약 10%p 더 높은 선호도를 보임. 이는 도민들이 예산의 안정적인 증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예술인들은 작은 비율의 증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곧바로 높은 비율(20% 또는 30%)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함을 보여줌
- 고비율 선호의 차이: 참여 인원 기준과 마찬가지로, 예술인(22.7%)은 도민(12.0%)보다 ‘40% 이상’의 최고 비율에 대한 선호도가 약 10%p 이상 높게 나타나, 예산 확보 규모에 대한 예술인들의 기대치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음



예상 기준	도민		예술인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10% 미만	7	4.2	2	4.5
10% 이상	40	24.1	6	13.6
20% 이상	48	28.9	13	29.5
30% 이상	51	30.7	13	29.5
40% 이상	20	12.0	10	22.7
합계	166	100	44	100

## 2. 비교 종합

- 충남 예술인 쿼터제 도입에 대한 충남도민, 예술인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문항	그룹별 최다 선호 항목 및 비율	공통점 및 정책적 함의	차이점 및 정책적 함의
문-1. 도입 필요성	도민: 필요하다 (80.98%)	압도적 찬성: 양 그룹 모두 80% 이상의 강력한 찬성으로 쿼터제 도입의 정책적 정당성 확보	미미한 차이: 예술인 찬성 비율(약 83.64%)이 도민(약 80.98%)보다 근소하게 높음
문1-2. 불필요 이유	도민: 행사 품질 미흡 (26.98%), 자율성 침해 (25.39%)	질적 우려 공유: 양 그룹 모두 정책 도입 시 '행사 품질 저하'와 '자율성 침해'를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지목. (질적 통제 시스템 필수)	예술인의 강한 우려: 예술인 그룹의 '품질/자율성 침해' 우려 비율(각 36.84%)이 도민보다 현저히 높음. (창작 현장의 전문성 유지 요구)
문-2. 정책 목표	도민: 활동지원과 역량강화 (28.62%)	활동 지원 최우선: 양 그룹 모두 '활동 지원과 역량강화'를 쿼터제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여 정책 방향에 대한 합의 형성	가치관 차이: 도민은 '생태계 보호'(20.69%)에, 예술인은 '경제 복지 증진'(22.35%)에 더 높은 선호도를 보임. (공익 vs. 실질적 경제 혜택)

문항	그룹별 최다 선호 항목 및 비율	공통점 및 정책적 함의	차이점 및 정책적 함의
문-3-1. 쿼터제 기준	도민: 1, 2 조합 (39.76%)	복합 기준 선호: 양 그룹 모두 '참여 인원'과 '예산'을 결합한 '복합 기준'을 가장 선호 (정책의 다각적인 성과 측정 요구)	예술인의 조합 선호 강화: 예술인의 조합 선호도(53.33%)가 도민(39.76%)보다 13.57% 높아, 안정적인 정책 운영을 위한 명확한 기준 설정 요구가 강함
문-3-2. 예산 확보	도민: 예산 내 (43.03%)	혼합 자원 타협: '1, 2 조합'이 양 그룹 모두에서 중요한 지지(도민 29.70%, 예술인 52.27%)를 얻은 유일한 타협점	자원 확보에 대한 차이: 도민은 '예산 내'(43.03%)를 선호하여 재정 건전성 요구. 예술인은 '1, 2 조합'(52.27%)을 선호하여 자원 확보와 안정성을 요구
문-3-3. 장르 구분	도민: 장르 구분 없이 (66.27%)	장르 중립 원칙: 양 그룹의 3분의 2 이상이 '장르 구분 없이' 운영해야 한다는 강력한 합의. (포괄적 지원 및 자율성 보장 요구)	미미한 차이: 예술인 그룹(67.39%)이 도민 그룹(66.27%)보다 '장르 구분 없이'에 대한 선호도가 근소하게 높음
문-3-4. 세대 구분	도민: 세대 구분 (56.97%)	의견 분산: 양 그룹 모두 찬반 의견이 40% 이상으로 분산되어, 세대 구분 기준 설정 시 정책적 갈등 가능성 내포.	접근 방식 차이: 도민은 '세대 구분'(56.97%)을 요구하여 공정성 및 투명한 감시를 강조. 예술인은 '세대 구분 없이' (52.17%)를 근소하게 선호하여 현장 자율성 유지를 강조
문-3-5. 도입 방식	도민: 유도형 (42.42%)	유도형 합의: 양 그룹 모두 강제성이 낮은 '유도형(인센티브 기반)'을 가장 선호 (규제 대신 지원 중심 정책 방향 설정)	예술인의 유연성 요구: 예술인의 유도형 선호(46.67%)가 도민(42.42%)보다 높으며, 의무형과의 격차가 커 자율성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
문-4-1. 참여 인원 비율	도민: 20% 이상 (34.34%)	실효적 규모 요구: 양 그룹 모두 20% 이상의 비율에 강력히 지지하며, 10% 미만의 최소 비율을 기피. (정책의 실질적 영향력 확보 요구)	최고 비율 기대치 차이: 예술인은 '30% 이상'(29.55%)을 최다 선호하며, '40% 이상' 고비율 선호(22.73%)도 도민(9.64%)보다 2배 이상 높음.
문-4-2. 예산 기준 비율	도민: 30% 이상 (30.72%)	30% 이상 합의: 양 그룹 모두 '30% 이상' 비율에 대해 가장 높거나 공동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임. (최적 비율로 정책 추진 시 안정적인 재정 규모 확보)	고비율 기대치 차이: 예술인의 '40% 이상' 고비율 선호(22.73%)가 도민(12.05%)보다 높아, 예산 규모 확대에 대한 기대가 더 높음.
종합 정책 제언: 최적 비율	참여 인원 기준: 30% 이상 (도민 29.52%, 예술인 29.55%)	예산 기준: 30% 이상 (도민 30.72%, 예술인 29.55%)	정책적 합의: 도민과 예술인 모두 쿼터제의 실효성을 위해 참여 인원 및 예산 기준을 30%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에 높은 공감대를 형성.

5

## 충남 예술인 쿼터제 도입 검토 및 기본방안

---

제1절 충남 예술인 쿼터제 도입의 쟁점 사항과 당위성 검토 .....	69
제2절 도입방안 .....	77
제3절 추진방안 .....	82



## 제1절 충남 예술인 쿼터제 도입의 쟁점 사항과 당위성 검토

- 충남 예술인 쿼터제 도입에는 다음과 같은 법제도적, 사업추진(운영) 측면의 쟁점 사항과 충남 예술인 현황과 실태, 참여, 공감 측면에서의 당위성은 다음과 같음

### 1. 충남 예술인 쿼터제 도입의 쟁점 사항

#### 1) 법제도적 측면의 쟁점과 한계

##### (1) 헌법상 기본권 침해 논란

- 평등권 및 지역 차별 : 특정 지역(충남) 예술인에게만 배타적인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평등권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합리적 사유 없이 타 지역 예술인을 배제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행위 권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큼
- 직업 및 예술의 자유 : 공공이 공연 라인업에 강제적인 비율을 설정하는 것은 예술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헌법 제15조)와 기획자의 예술적 자율성 및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제22조)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2) 조례 제정권의 한계(법률유보 원칙)

-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강행적 쿼터'를 조례로 정하기 위해서는 상위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이 필요함
- 현재 「지역문화진흥법」 등은 일반적 지원 근거만 제공할 뿐 '의무 비율'에 대한 위임 근거가 미비하여, 법적 정당성 확보가 어려움

### (3) 지방계약법 및 공정 경쟁 원칙과의 충돌

- 공공행사 대행 용역 계약 시 과도한 지역 제한을 두는 것은 지방계약법상의 비차별 및 공정 경쟁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음. 이는 계약 관리 및 사후 평가 항목 설계 시 법적 정합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됨

## 2) 사업 추진 및 운영 측면의 어려움

### (1) 행사 품질 저하 및 기획 자율성 위축

- 설문 조사 결과, 도민(27.0%)과 예술인(36.8%) 모두 도입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행사 품질의 미흡'과 '행사 기획의 자율성 침해'를 꼽았음. 쿼터제가 단순히 숫자 채우기로 전락할 경우 행사의 창의성과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큼

### (2) 인적 자원의 심각한 지역 불균형

- 충남 예술 활동 증명 완료자의 약 70%가 천안, 아산 등 특정 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시·군별로 동일한 쿼터제를 적용하기에는 충남도 내 인적 자원 풀(Pool)의 격차가 너무 큼

### (3) 참여 구조의 형식화(Tokenism) 위험

- 지역 예술인을 주도적 프로그램이 아닌 보조적·부수적 프로그램에만 배치하는 방식이 고착화될 수 있음. 현재도 외부 예술인과 지역 예술인 간 출연료 격차가 최대 9배에 달하는 등 노동 가치의 저평가 문제가 심각함

## 3) 행정 관리적 측면의 제약

### (1) 예술인 정의와 기준 설정의 모호성

- '충남 예술인'을 판별하는 기준(주소지, 활동지, 예술활동증명 여부 등)을 설정하는 과정이 복잡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증빙 수집 절차 역시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

## (2) 모니터링 및 환류 체계 부재

- 현재 시·군별로 지역 예술인 참여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사후 평가에 반영하는 표준화된 지표가 부족하여, 제도 도입 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4) 쟁점사항 검토 종합

- 충남 예술인의 구조적 취약성(낮은 소득, 창작 기회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는 타당하나, 법적·실무적 제약을 고려할 때 강제적인 의무 도입은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① 사회적 합의 및 수용성 확보 우선

- 쿼터제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의무형’보다는 ‘유도형(42.4%)’이나 ‘권장형’을 선호하는 목소리가 높음. 강제적 쿼터는 오히려 예술 현장의 창의성을 경직시키고 지역 예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

### ② 생태계 자생력 강화와의 병행 필요

- 쿼터제는 일시적인 일자리 제공에 불과할 수 있음. 충남 예술인의 월평균 예술활동 수입이 전국 평균보다 21.7% 낮은 근본적인 문제는 단순 참여 비율 확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음. 예술인의 역량 강화 및 레지던시 지원 등 자생력을 키우는 보완 사업이 선행되어야 함

### ③ 법적 안전장치 및 유연한 운영 체계 미비

- 헌법상 기본권 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최대 비율 제한’이 아닌 ‘지역 참여 최소 목표’를 설정하고, 장르별 희소성이나 행사 규모에 따른 예외 규정을 세밀하게 설계해야 함. 이러한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도입은 행정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2. 충남 예술인 쿼터제 도입의 당위성

- 충남 예술인 쿼터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①충남 예술인 현황(인력, 창작활동, 소득, 인프라 등), ②충남 예술인의 행사 및 참여현황(지급예산, 참여인원비율), ③충남 예술인 쿼터제 도입에 대한 의견 측면에서 검토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 1) 구조적 취약성과 생존형 예술 활동의 고착화 대응 필요 - 현황측면

- 충남 지역의 예술 생태계는 인력 규모의 한계, 낮은 창작 지속성, 열악한 경제적 조건, 취약한 인프라라는 ‘4중고(四重苦)’를 겪고 있으며, 이는 자생적인 생태계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음

#### (1) 인력 규모 및 분포의 불균형

- 절대적 인력 부족: 2025년 기준 충남의 예술활동증명 등록 인원은 4,070명으로, 이는 전국 예술인의 ‘2.03%’에 불과. 인구 1만 명당 예술인 수도 4.9명으로 전국 평균(12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인적 기반 자체가 매우 협소
- 지역 간 편차 심화: 천안, 아산, 서산, 공주 등 도시 지역에 예술인이 집중되어 있으며, 그 외 군 단위 지역은 창작 인력이 극히 부족하여 지역 내 문화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

#### (2) 창작 활동의 단절과 낮은 지속성

- 높은 활동 중단율: 예술 활동을 중단한 비율이 ‘20.9%’에 달해, 많은 예술인이 창작을 포기하거나 휴지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남
- 기회 부족: 연간 발표 및 참여 횟수는 평균 2.6회로 전국 평균(3.8회)보다 낮아, 예술인들이 대중과 만날 기회 자체가 구조적으로 부족함을 보여줌

### (3) 경제적 취약성 (생존형 예술인)

- 저소득 구조: 충남 예술인의 소득 수준은 전국 평균 대비 30~40% 이상 낮으며, 전업 예술인 비율은 낮고 겸업 비율(48.8%)은 전국 평균보다 높음
- 생계형 부업 의존: 낮은 예술 활동 수입으로 인해 생계를 위한 부업에 내몰리는 '생존형 예술인'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어, 창작의 질적 하락이 우려됨

### (4) 취약한 창작 인프라

- 전문 조직 부족: 인구 1천 명당 전문예술 법인·단체 수는 0.021개로 전국 평균(0.031개)을 밑돌고 있어, 예술인들이 협업하거나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이 매우 취약

## 2) 기회의 양극화와 노동 가치의 저평가 - 참여측면

- 지역 내 축제와 행사에서 충남 예술인들은 주도적인 역할보다는 보조적인 역할에 머무르고 있으며, 외부 예술인과의 처우 격차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겪고 있음

### (1) 참여 인원 비율의 양극화 및 주변화

- 참여율의 양극화: 지역 예술인 참여율이 80~100%에 달하는 행사와 20% 이하인 행사 간의 격차가 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행사일수록 지역 예술인의 참여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
- 역할의 한계: 지역 예술인이 참여하더라도 메인 프로그램이 아닌 식전 행사나 보조적·부수적 프로그램에 배치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예술적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제한적임

## (2) 예산 지급 및 처우의 불균형

- 심각한 단가 격차: 재단 주관 행사에서조차 외부 초청 예술인과 충남 지역 예술인 간의 1인당 지급액(출연료 등) 차이가 최대 9배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노동 가치 저평가: 이는 단순한 예산 배분의 문제를 넘어, 지역 예술인의 노동 가치가 시스템적으로 저평가되고 있음을 시사함

## (3) 악순환의 고리 형성

- 구조적 악순환: [창작 기반 취약 → 지역 축제 참여 기회 축소 → 경제적 보상 미흡 → 예술 활동 지속 곤란 → 예술인 이탈 및 등록률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 관리 시스템 부재: 시·군별로 지역 예술인 참여율을 관리하거나 목표를 설정하는 정책적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며, 사후 평가에서도 ‘지역예술인 환류율’ 지표가 미흡하여 외부 의존형 행사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3) 쿼터제 도입에 대한 강력한 지지와 우려 공존 - 공감 측면(수용과 요구)

- 설문조사 결과, 예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충남 도민들 또한 지역 문화 생태계 보호를 위해 쿼터제 도입에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음

### (1) 충남 도민 의견

- 도입 필요성: 일반 도민 응답자의 81.0%가 쿼터제 도입에 찬성하여, 지역 예술인 지원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미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
- 반대 이유: 반대 측은 행사 품질 저하 우려(27.0%), 기획 자율성 침해(25.4%), 예술인 간 역차별(20.6%) 등을 우려함

## (2) 충남 예술인 의견

- 도입 필요성: 설문 응답자의 83.6%가 쿼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당사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음
- 반대 이유 (우려점): 도입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소수(16.4%)의 경우, 주요 이유로 '행사 품질의 미흡(36.8%)'과 '행사 기획의 자율성 침해(36.8%)'를 꼽았음. 이는 쿼터제 도입 시 예술적 완성도와 기획자의 재량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줌

## (3) 종합 시사점

- 제도적 개입의 정당성 확보: 예술인과 도민 모두 80% 이상의 높은 찬성률을 보인 것은, 현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쿼터제'라는 적극적인 행정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함
- 보완책 필요: 다만, 행사 품질 저하와 역차별 논란 해소를 위해 쿼터제 적용 범위를 유연하게 설정하고, 지역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함

## 4) 쿼터제 도입의 당위성

- 위의 분석을 종합할 때, 충남 예술인 쿼터제는 단순한 일자리 나누기가 아니라 붕괴 위기에 처한 지역 예술 생태계를 복원과 생존, 문화자치권 확보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선택일 수 있음

### (1) 생존권 보장 : 생태계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 전국 최하위 수준의 소득과 기회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 예술인에게 최소한의 활동 기회를 보장

### (2) 악순환 고리 차단 : 지역 자본의 선순환과 '공정성 회복'

- '기회 부족-보상 미흡-이탈'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고, 지역 내에서 예술 활동이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

### (3) 지역 문화 자생력 강화

- 외부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 고유의 문화 콘텐츠와 인적 자산을 키워, 장기적으로 충남 문화 예술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반이 될 것임

### (4) 정책 도입에 대한 필요성 공감 : 도민과 예술인이 함께 원하는 '민주적 정책'

- 80%가 넘는 도민과 예술인의 찬성률은 이 정책이 특정 집단의 이익 챙기기가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의 요구임을 증명
- 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며, 오히려 지역 예술인에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충남 고유의 문화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 제2절 도입방안

### 1. 충남 예술인의 정의와 기준설정

- 충남 예술인 쿼터제 도입은 충남지역 예술인의 활동을 증진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남 예술인’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정의와 기준 설정이 필수적임

#### 1) 예술인 자격 증명 기준: ‘예술활동증명 완료’

##### (1) 제안 범위

- 「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사람

##### (2) 근거

-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 및 복지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 정책의 기본 전제임
- 충청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 역시 예술인을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 2) 거주지 자격 기준: ‘충청남도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설정’

##### (1) 거주지 및 거주기간의 최소 요건

-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그 등록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계속하

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 근거

- 충청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는 예술인의 지역적 범위를 "충청남도 주소로 두고 있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음
- '쿼터제'가 지역 예술인의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일시적인 주소 이전이 아닌 실질적인 지역 기반 활동 예술인을 대상으로 해야 함. 최소 거주기간(예: 1년) 설정은 이러한 '지역 연고성(Local Linkage)'과 지역 활동 의지를 검증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됨

요건 설정	근거	세부 설명
정책적 필요성	지역 연고성 (Local Linkage) 확인	쿼터제의 목적은 '충남 지역 기반' 예술인의 활동을 증진하고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 일시적 주소 이전(주민등록 이전)을 통한 수혜를 방지하고, 해당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며 지역 문화에 기여할 의지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
행정적 관례	지방 선거권 등 일반적인 기준 참고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권, 각종 보조금, 일부 조례상 거주 요건 등에서 3개월~1년을 최소 거주 기간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음 (예: 지방의회 의원 선거권은 과거 6개월 이내 주소 기준). 이 중 1년은 해당 지역에서의 '생활 근거지'가 확고함을 증명하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됨

(2) 예외적 인정 (거주기간 충족 불가 시)

- 주민등록 기준은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과거 충청남도 거주기간이 총 5년 이상이며 현재도 충남에서 활발하게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예: 충남에서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개인/단체전 또는 공연 실적이 있는 경우 등)

• 근거

- 지역 문화예술계에는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겼으나 여전히 충남에 대한 문화적 기여도나 연고성이 높은 예술인들이 존재함
- 쿼터제의 지역 문화 발전 기여라는 목적을 고려할 때, 단순히 현 시점의 주민등록 기간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역 문화계의 인적 자원을 포괄적으로 활용하지 못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에도 객관적인 충남 지역 내 예술 활동 실적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여 '무늬만 충남 예술인'인 경우를 방지해야 함

예외 인정	근거	세부 설명
정책적 필요성	지역 출신 및 기여 예술인 포괄	충남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거나 거주했으나, 현재는 불가피하게 타 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예: 수도권에 작업실만 두고 활동하거나, 교육/병원 등의 이유로 일시 이주한 경우) 중 여전히 충남 문화계에 기여하는 인력을 포괄하기 위함임
예술활동증명 기준 참고	예술활동의 유효 기간 기준	「예술인 복지법」의 예술활동증명 기준 중, 실적 기반의 예술활동 실적 인정 기간이 '최근 5년'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있음. 이는 예술인의 직업적 활동 역량을 판단하는 중요한 단위 기간이 '5년'임을 시사함
지역 문화계 경력 인정	장기적 기여 인정	5년이라는 기간은 한 지역에서 장기적인 교육 과정을 이수하거나 전문적인 경력을 쌓는 데 필요한 최소 기간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음. 과거 5년 이상의 거주 이력은 충남 지역 문화예술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연고를 형성했음을 의미함.

### 3) '충남 예술인'의 정의와 기준

- 충남 예술인 쿼터제에서 '충남 예술인'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을 유효하게 완료한 자와 함께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증 또는 해당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전수자 등 관련 공인 자격을 보유한 자 포함

- ① 충청남도예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그 등록일로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충남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으로 확인
  - 단체: 충청남도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
- ② 과거 충청남도예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총 5년 이상이며, 최근 3년간(또는 5년간) 충남 지역 내에서 문화예술 창작 및 실연 활동 실적을 2회 이상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최근 5년 이내 충청남도 내에서 개인전/개인 공연/발표회 등 예술 분야에서 공식적인 활동(기획 및 참여 포함) 실적이 3회 이상 있는 자
  - (문학 분야) 전국 단위 문학 공모전 당선 또는 등단 실적이 있는 자
  - (단체) 충청남도 내에서 3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

## 2. 충남 예술인 쿼터제의 정책 목표

- 충남 예술인 쿼터제 정책의 핵심목표는 단순히 기회 제공을 넘어 지역 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예술인의 실질적인 활동 환경 개선에 중점을 줄 것을 제안

순위	정책 목표	근거 (의견 수렴 결과)
1순위 (활동지원과 역량강화)	충남 예술인의 활동 지원과 역량 강화	충남도민 및 예술인 그룹 모두 최다 선호 항목으로 선정됨
2순위 (예술인 체감)	충남 예술인의 경제·복지 증진	예술인의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열악한 소득 현황(전국 대비 월평균 예술활동 수입 21.7% 낮음)을 개선
3순위 (기반 조성)	충남 예술인 생태계 보호	도민 그룹에서 두 번째로 선호하는 목표

## 3. 충남 예술인 쿼터제의 세부 기준 설정

### 1) 쿼터 기준설정(인원 vs 예산)

- 제안 기준: 참여 인원과 예산을 조합한 복합 기준
- 근거: 단순 인원만 맞추면 형식적 참여가 될 수 있고, 예산만 맞추면 소수 인원에게 집중될 위험이 있으므로, 실효성 확보를 위해 두 요소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음

### 2) 쿼터 비율

- 쿼터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소 2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예술인들의 기대치를 반영하여 30%를 기본 목표 비율로 제안
- 근거:

구분	기본 목표 비율	근거 (선호도)
참여 인원 비율	총 출연 예술인 인원의 30% 이상	도민과 예술인 모두 20% 이상을 강력히 지지하며, 예술인의 최다 선호 비율이 30% 이상이었음.
예산 비율	총 출연료의 30% 이상	예술인 그룹에서 30% 이상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 3) 세대 구분 및 장르 도입 방식

#### (1) 세대구분

- 세대 구분: 기성/청년 등을 구분하여 신진·청년 예술인의 참여 보장을 위한 ‘청년 쿼터’를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 근거: 청년 예술인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 요청 등 청년 예술인 지원에 대한 요구가 정책 추진 배경에 있었으며, 예술인 그룹의 47.8%가 구분에 찬성

#### (2) 장르구분

- 장르 구분: 장르 구분 없이 도입하되 융복합 장르를 반영하는 방식(예술인 67.4% 선호)을 채택
- 근거: 다양한 창작 활동을 포괄하고 급변하는 예술 환경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4) 도입 방식

- 제안 방식: 유도형(인센티브 기반) 도입
- 근거: 충남도민과 충남 예술인 모두 강제성이 낮은 ‘유도형’을 가장 선호하여, 정책 도입에 따른 ‘행사 품질 저하’ 및 ‘기획 자율성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 5) 예산 확보 방안

- 제안 방안: 기존 행사 예산 내 일정 비율 확보와 예산 외 추가적인 예산 확보 방법을 조합하여 확보
- 근거: 기존 예산 내에서만 확보할 경우 행사 규모와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예술인의 최다 선호 의견(52.3%)에 따라 추가 예산 확보를 병행해야 정책 목표인 경제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

## 제3절 추진방안

### 1. 정책 틀 마련과 운영 표준화

#### 1) 쿼터제 도입 방식 및 정책 목표 명확화

구분	추진 방안	세부 기준 및 방법
도입 방식 확정	유도형 (Incentive-Based) 정책 으로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제 규제 대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li> <li>쿼터 미준수 시 불이익을 주는 방식 대신, 준수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li> </ul>
정책 목표 최우선 순 위	'활동 지원 및 역량 강화' 와 '경제 복지 증진'을 최 우선 목표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순 참여율 증대만이 아닌, 지역 예술인의 실질적인 소득 및 활동 기회 개선에 초점</li> <li>예산 쿼터제(30% 이상)의 준수를 통해 실질적인 노동 가치 보상 추진</li> </ul>

#### 2) 쿼터 기준 및 비율 운영 표준화

구분	추진 방안	세부 기준 및 방법
쿼터 기준	참여 인원과 예산 비율을 결합한 복합 기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원 쿼터) 총 출연 예술인 인력의 30% 이상을 총남 예술인으로 구성</li> <li>(예산 쿼터) 총 출연료의 30% 이상을 총남 예술인에게 배정</li> </ul>
대상 사업 분류	대상사업을 등급별 차등화 한 뒤 쿼터 비율 및 인센티브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쿼터제 적용 대상 사업을 규모,</li> <li>성격(축제/공연/전시 등),</li> <li>예산 규모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하여 적용</li> </ul>
세대별 구분 (청년 쿼터)	청년 예술인 쿼터를 별도 운영하여 신진 예술인의 참여 기회 보장	만 39세 이하의 청년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쿼터를 별도 목표(예: 인원 쿼터 내 10% 이상)로 설정하여 청년 예술인의 유입 및 성장을 지원
장르 구분	장르 구분 없는 포괄적 운영	순수 장르분 아니라 융복합 장르까지 포괄하는 정의를 채택하여, 예술계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고 다양한 창작 활동을 지원

## 3) '충남 예술인'의 정의 및 등록 관리

구분	추진 방안	세부 기준 및 방법
'충남 예술인' 정의 확립	「예술활동증명」 + 「거주·활동 요건」 결합	1.기본 요건: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객관적 전문성 확보) 2.거주/활동 요건 (택일): ①1년 이상 충남 거주자 또는 ②총 5년 이상 거주 이력 및 최근 3년간 충남 지역 내 2회 이상 창작/실연 활동 실적 증명자
등록 시스템 구축	충남문화관광재단 등 지정 기관에 '충남 예술인 등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쿼터제 적용 사업의 기획단계에서 부터 정확한 대상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DB 구축 및 지속적인 업데이트 실시

## 2. 실행 전략 및 지속 가능성 확보

## 1) 재원 확보 및 예산 집행 전략

구분	추진 방안	세부 내용
예산 확보 방식	조합형 재원 확보	•기존 행사 예산 내에서 쿼터 비율(30%)을 확보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도비 확보를 병행 •추가 확보 예산을 통해 인센티브 재원 및 지역 예술인 역량 강화 사업에 투자
인센티브 제도화	지역 예술인 참여 우수 기관 인센티브 제도 도입	•쿼터 비율(30% 이상)을 초과 달성하거나 질적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시군, 출연 기관, 민간 기획사를 대상으로 차년도 사업비 가점 부여 또는 별도 보조금 지원
노동 가치 보상	외부 예술인과의 출연료 격차 해소를 정책 목표에 포함	•단순 쿼터 비율만 맞추는 것이 아닌,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예술 활동에 대해 외부 예술인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출연료를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모니터링

## 2) 질적 통제 및 평가 시스템 구축 (우려 해소)

구분	추진 방안	세부 내용
사전·사후 질적 심사 강화	전문 심사위원단 구성을 통한 질적 심사 및 평가 강화	•쿼터제 적용 사업 선정 시, 지역 예술인의 전문성과 역량을 평가하는 전문 심사 항목을 신설하여 '행사 품질 저하' 우려를 사전 차단.
평가 지표 반영	쿼터 달성률을 핵심 성과 지표(KPI)에 반영	•충청남도 및 시군의 문화예술 관련 출연 기관,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연간 평가 시 '충남 예술인 참여율 및 예산 배정률'을 정량 및 정성 평가 항목으로 의무 반영.
피드백 체계 구축	참여 예술인과 관람객의 피드백을 수집하여 우수 예술인/단체를 재초청하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선순환 구조 확립	

## 3) 정책 거버넌스 및 제도적 정합성 확보

구분	추진 방안	세부 내용
추진 협의체 구성	(가칭) 충남 예술인 쿼터제 운영 협의체 구성	•충청남도, 시·군 담당자, 충남문화관광재단, 예술인 단체, 민간 기획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제도 운영 중 발생하는 문제점 및 세부 기준을 지속적으로 조율
제도적 정합성 확보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	•충청남도 및 시군의 문화예술 진흥 조례 등에 쿼터제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지역예술인 참여 가점제' 등 기존 제도와 충돌하지 않는 유도 장치를 마련
홍보 및 교육	쿼터제 도입의 취지, 운영 기준, 인센티브 등에 대해 시·군 및 관련 기관 담당자 대상 정기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정책 이해도 및 수용성을 제고	

## 참고문헌

### (1) 단행본

황경식. 2018. 존 롤스 정의론 -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원. 쌤앤파커스.

### (2) 보고서

김상우. 2020. 울산 청년문화예술인을 위한 지원방안 개선에 대한 연구. 울산연구원.

김건호 외. 2021. 경기도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 (3) 학회지

최한준. 2008. “우리나라 스크린쿼터제 변천의 법적 고찰”. 경영법률. 18권 3호: 299-327.

오정일, 조현승. 2005. “스크린쿼터제의 문화정책적 유효성 검증”. 한국정책학회보. 14권 1호: 55-72.

### (4) 법령

대한민국헌법. 1988. 제11조, 제15조, 제22조.

지역문화진흥법. 2022. 법률 제18780호(2022. 1. 18., 일부개정). 제6조.

문화예술진흥법. 2023. 법률 제19480호(2023. 6. 20., 일부개정). 제7조, 제9조, 제15조.

예술인 복지법. 2025. 법률 제20915호(2025. 4. 8., 일부개정). 제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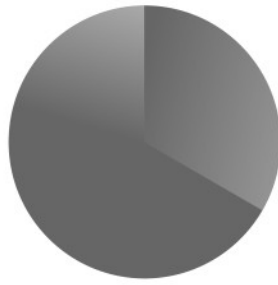
지방자치법. 2024. 법률 제19951호(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

지방계약법. 2024. 법률 제19634호(2023. 8. 16., 타법개정). 제9조.

### (5) 보도자료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청년 예술인과 소통의 장 마련 - 도, 29일 ‘충청남도 청년 예술인 정책 소통 간담회’. 25.4.29. 충청남도 보도자료.





## 부록

—

1. 회의록.....	89
2. 설문조사지.....	92



## 1. 회의록

### 1) 착수전 자문회의

#### (1) 개최개요

주제	충남 예술인 쿼터제 도입 착안사항과 접근방향
일시/장소	2025.8.13.(수) 오전10:00, 충남연구원 2층 세미나실
참석자	이지원 충남문화관광재단 본부장 박준영 충청남도청년예술인 총연합회 회장 박철희 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신선하 충남연구원 연구원

#### (2) 회의내용

##### ■ 이지원 충남문화관광재단 본부장

- 예술인 쿼터제 도입 배경 및 목표에 대한 명확한 정의 필요. 충남 예술인의 경제적인 안정과 소득,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충남 예술인의 경쟁력 확보 등 어느 것에 목표를 둘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스크린 쿼터제를 생각할 때 충남 예술인 경쟁력, 충남예술발전에 목표를 둘 필요가 있음
- 충남 예술인의 인정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고민 필요. 충남 예술인 인정범위로 예술활동증명, 지역거주, 협회 및 단체 가입 등 어느 것으로 충남 예술인을 정의할지 고민 필요
- 법적 행정적 이행 체계에 대한 고민 필요.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활성화를 위해 의무제로 하는 것 검토
- 적정 쿼터 비율에 대한 고민, 쿼터제 시행시 예술인 선정 기준, 이해충돌 방지 장치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필요. 그리고 잘 이행되는지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필요
- 재정 측면에서 추가적, 다각적인 재원 확보 필요, 참여예술인을 위한 공정한 보상과 복지 보장 필요
- 도입방안으로서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검토. 시범사업, 초기에는 낮은 비율에서 점차 확대, 지역별, 장르별 특성에 따른 도입 등 고민 필요

### ■ 박준영 충청남도청년예술인 총연합회 회장

- 지역예술인도 지역민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지역예술인이 활동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쿼터제 도입 필요
- 예술인 쿼터제 도입뿐 아니라 공연에서 실질적, 효과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고민 필요. 예를 들면 관객들은 대부분 일과 시간 후나 휴일을 선호하는 점, 주무대와 보조무대의 공연 프로그램 참여 균형 보장 등
- 쿼터제라 할지라도 예산이 적으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음. 인당 참여예산이 너무 적은 경우가 많음
- 예술인에서 법인, 단체의 경우도 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함. 전문예술인/생활예술인을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필요

### ■ 박철희 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예술인 쿼터제 도입에 따른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 충남 예술인에 대한 정의, 범위를 할 필요가 있고, 행사규모, 비용 등을 파악해서 실제 예술인이 어느 정도 참여(인력, 예산 등)하는지 파악 필요
- 목표에 대해 예술인, 충청남도·시·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음

## 2) 충남 예술인 의견수렴

### (1) 개최개요

주제	충남 예술인 쿼터제 도입에 따른 충남 예술인 범위와 적용시 고려사항
일시/장소	2025.12.04.(목) 오후2:00, 천안축구센터 대회의실
참석자	충남 예술인 약 20여 명 박철희 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지원 충남문화관광재단 본부장 정기훈 충남문화관광재단 예술지원팀 팀장 김영숙 충남문화관광재단 예술지원팀 대리 천안문화재단 정책기획팀장 천안문화재단 황수민 담당

## (2) 회의내용

- 충남 예술인 쿼터제 도입 연구배경, 1차 설문조사결과를 설명하고 충남 예술인 정의와 적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 ■ 예술인 의견 1

- 충남지역 예술인과 타지역 예술인 간의 상호 교류 공연, 전시를 통해 예술활동 기회를 확대했으면 함

### ■ 예술인 의견 2

- 시군별로 공공공간(광장 등)을 활용해서 이벤트/행사 기회를 많이 만들었으면 함. 1년에 1~2번 하기도 어려움

### ■ 예술인 의견 3

- 예술인은 작품을 홍보하기 힘들데 인지도가 높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음

### ■ 예술인 의견 4

- 청년예술인들은 새로운 시도에 의한 발표 기회, 예술활동 참여에 진입장벽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어려움. 쿼터제가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 ■ 예술인 의견 5

- 국악관련해서 천안행사에 참여. 당시 참여제를 건의하였었음. 청년예술인들에게 참여기회가 있었으면 함

### ■ 예술인 의견 6

- 신진예술인뿐만 아니라, 장애예술인도 참여를 시킬 수 있는 고민이 있었으면 함

## 설문조사지

### 충남예술인 쿼터제 도입에 관한 연구

ID

안녕하세요? 충남연구원입니다.

저희 충남연구원에서는 충남예술인의 활동 기회 보장, 충남 문화예술진흥과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충남예술인 쿼터제 도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충남예술인 쿼터제란?** 충청남도 내에서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에 충남예술인의 참여를 일정비율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연구를 위해 기획된 것으로서, 결과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통계적인 자료로만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성실히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충남연구원장

#### 설문응답자 유의사항

○ 충남예술인 현황과 도입에 따른 장단점의 내용을 읽으신 후 설문에 응답해 주세요.

충남예술인 현황(2020년 기준)	충남 예술인 평균	전국 예술인 평균	차이
연간예술작품 발표 또는 참여횟수	2.6회	3.8회	-1.2회 ↓
월평균 예술활동 수입	약 45.3만원	약 57.9만원	-21.7% ↓
월평균 전체 소득	약 180.8만원	약 331만원	-45.4% ↓
겸업예술인으로 종사	48.8%	44.9%	+3.9% ↑
예술활동 전업 비율	30.3%	55.1%	-24.8% ↓

충남예술인 쿼터제 도입의 장단점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 지역예술인의 행사 참여 기회 보장</li> <li>✓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제공</li> <li>✓ 충남 문화예술 생태계 보호와 자립성 기여</li> <li>✓ 충남 문화예술 활성화 기여</li> </ul>
충남예술인 쿼터제 도입의 장단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등권 저해, 지역 차별 등 요인 발생</li> <li>✓ 행사 품질의 저하 - 행사 완성도, 도민 기대감 저하</li> <li>✓ 기획의 자율성 침해</li> <li>✓ 행정 부담 증가</li> </ul>



문-3. 충남예술인 쿠틀제를 도입한다면 부문별로 어느 것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문항별 체크)

문-3-1. 쿠틀제 기준설정에 대한 사항?

- ① 행사 프로그램에 참여 인원을 기준 (참여인원 중 00%)
- ② 행사 프로그램에 예산을 기준 (예산 중 00%)
- ③ ①번 ②번을 조합(예:참여인원 중 0% 이상, 예산 중 0% 이상)

문-3-2. 예산 확보에 대한 사항?

- ① 기존 행사 예산 내에서 일정 비율을 확보
- ② 기존 행사 예산 외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
- ③ ①번 ②번을 조합하여 확보(예:기존 행사의 예산 내 일정 비율 확보뿐 아니라 추가 예산 확보)

문-3-3. 장르 구분에 대한 사항?

- ① 기존 장르를 고려하여 도입 - 문화예술진흥법상 장르 내
- ② 장르 구분 없이 도입 - 융복합 장르 반영

문-3-4. 세대 구분에 대한 사항?

- ① 기성(원로, 중견), 청년(만 39세 이하) 등을 구분하지 않음
- ② 기성(원로, 중견), 청년(만 39세 이하) 등을 구분하여 신진·청년 예술인의 참여를 보장

문-3-5. 도입방식에 대한 사항?

- ① 의무형-쿠틀제 도입을 의무화하여 도입
- ② 유도형-인센티브 등을 통해 도입 활성화
- ③ 권장형-권장 또는 권고형으로 도입 참여 유도

문-4. 충남예술인 쿠틀제를 도입한다면 어느 정도 비율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문-4-1. 참여 인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 ① 10% 미만 ② 10% 이상 ③ 20% 이상 ④ 30% 이상 ⑤ 40% 이상

문-4-2. 예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

- ① 10% 미만 ② 10% 이상 ③ 20% 이상 ④ 30% 이상 ⑤ 40% 이상

**III 충남 예술인 쿼터제 도입을 위한 제언**

문-5. 충남예술인 쿼터제 도입 시에 대한 고려사항, 제안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IV 통계를 위한 일반사항**

문-6. 귀하의 일반 사항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전체 동거 가구원수	총 _____ 명					
성 별	① 남자	② 여자	연 령	만 _____ 세		
거주지	( _____ 시/군/구)		( _____ 동/읍/면)			
응답자 최종학력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전문대 졸업			
	④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이상				
활동 예술장르	① 문학	② 미술	③ 사진	④ 건축	⑤ 음악	⑥ 국악
	⑦ 무용	⑧ 연극	⑨ 영화	⑩ 연예	⑪ 만화	⑫ 복수(응복합)
직업형태	① 전업		② 겸업			
겸업의 경우 겸업직업	① 농임축수산업 종사자	⑤ 일반사무직	⑨ 무직			
	② 자영업	⑥ 관리직/전문직	⑩ 군인			
	③ 판매/서비스직	⑦ 주부	⑪ 기타 ( _____ )			
	④ 생산/기술직/단순노무직	⑧ 학생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문-3. 충남예술인 쿼터제를 도입한다면 부문별로 어느 것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문항별 체크)

**문-3-1. 쿼터제 기준설정에 대한 사항?**

- ① 행사 프로그램에 **참여 인원**을 기준 (참여인원 중 00%)
- ② 행사 프로그램에 **예산**을 기준 (예산 중 00%)
- ③ ①번 ②번을 **조합**(예:참여인원 중 0% 이상, 예산 중 0% 이상)

**문-3-2. 예산 확보에 대한 사항?**

- ① 기존 행사 **예산 내**에서 일정 비율을 확보
- ② 기존 행사 **예산 외**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
- ③ ①번 ②번을 **조합**하여 확보(예:기존 행사의 예산 내 일정 비율 확보뿐 아니라 추가 예산 확보)

**문-3-3. 장르 구분에 대한 사항?**

- ① **기존 장르**를 고려하여 도입 - 문화예술진흥법상 장르 내
- ② **장르 구분 없이** 도입 - 융복합 장르 반영

**문-3-4. 세대 구분에 대한 사항?**

- ① 기성(원로, 중견), 청년(만 39세 이하) 등을 **구분하지 않음**
- ② 기성(원로, 중견), 청년(만 39세 이하) 등을 **구분**하여 신진·청년 예술인의 참여를 보장

**문-3-5. 도입방식에 대한 사항?**

- ① **의무형**-쿼터제 도입을 의무화하여 도입
- ② **유도형**-인센티브 등을 통해 도입 활성화
- ③ **권장형**-권장 또는 권고형으로 도입 참여 유도

**문-4. 충남예술인 쿼터제를 도입한다면 어느 정도 비율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문-4-1. 참여 인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 ① 10% 미만 ② 10% 이상 ③ 20% 이상 ④ 30% 이상 ⑤ 40% 이상

**문-4-2. 예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

- ① 10% 미만 ② 10% 이상 ③ 20% 이상 ④ 30% 이상 ⑤ 40% 이상

**III 충남예술인 쿼터제 도입을 위한 제언**

문-5. 충남예술인 쿼터제 도입 시에 대한 고려사항, 제안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IV 통계를 위한 일반사항**

문-6. 귀하의 일반 사항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전체 동거 가구원수	총 _____명				
성 별	① 남자	② 여자	연 령	만 _____세	
거주지	( _____ 시/군/구)		( _____ 동/읍/면)		
응답자 최종학력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전문대 졸업		
	④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이상			
활동 예술장르	① 문학	② 미술	③ 사진	④ 건축	⑤ 음악
	⑦ 무용	⑧ 연극	⑨ 영화	⑩ 연예	⑪ 만화
	⑫복수(응복합)				
직업형태	① 전업		② 겸업		
겸업의 경우	① 농림축수산업 종사자	⑤ 일반사무직	⑨ 무직		
겸업직업	② 자영업	⑥ 관리직/전문직	⑩ 군인		
	③ 판매/서비스직	⑦ 주부	⑪ 기타 ( _____ )		
	④ 생산/기술직/단순노무직	⑧ 학생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집필자

연구책임	박철희	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참여연구진	이지원	충남문화관광재단 본부장
	신선하	충남연구원 연구원
	전수광	충남연구원 연구원
연심위원	권영현	충남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한상헌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수시전략연구 2025-08

## 충남 예술인 쿼터제 도입에 관한 연구

발행인 전희경  
발행처 충남연구원  
발행 2025년 12월 31일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2589)  
전화 041-840-1114(대표)  
팩스 041-840-1129  
홈페이지 <http://www.cni.re.kr>  
ISBN 978-89-6124-769-6(95350)

© 2025 충남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30th ANNIVERSARY  
SINCE 1995

The image features a stylized number '30' logo composed of multiple parallel white lines. Below the logo, the text '30th ANNIVERSARY' is written in a clean, sans-serif font, with 'SINCE 1995' centered underneath it in a smaller font size. The entire graphic is centered on a dark gray background.